



코스피(2일)	코스닥
▲ 2617.76 (+15.17P)	▼ 872.10 (-1.19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112.70 (+2.30원)	▲ 0.963% (+0.008%p)

## 경사노위 합의문에 ‘노동이사제’ 企銀 등 금융공기업 도입 초읽기

‘노사합의문’ 첫 명시, 내달 본회의 상정...與 ‘공운법 개정안’ 발의

금융 공기업 중심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의 노사 합의문에 ‘노동이사제 추진을 위해 노사가 상호 노력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문은 12월 초로 예정된 경사노위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관련기사 3면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을 산하에 둔 기획재정부가 노동이사제를 정식 행정규칙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회의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정부위원들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등이 참석해 ‘노동조합 경영참여’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노동조합 경영참여의 구체적 방안인 노동이사제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문

#### 노동조합 경영참여

- 노동이사제 도입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노사 공감
- 과도적 대안으로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제’ 추진 동의

#### 의의

공공기관위원회 임기 1년 만에 처음으로 문서화

는데 뜻을 모았다. 공운법이 개정되기 전 과도기적 대안으로 노조추천이사제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노사가 상호 노력하자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경사노위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속도는 내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100대 국정과제에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것과 무관치 않다.

노동이사제는 공운법 개정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 전 단계 격으로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노사가 합의하면 도입할 수 있다.

21일로 임기 1년을 마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운법 개정과 노동이사제와 같은 구체적 방안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문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운법 개정안과 별개로 노동이사제 관련 갈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재부라는 게 중론이다. 작년 기준 공운법 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339개에 달한다. 기관들의 차별성을 고려해 일률적 법안보다는 각 기관에 맞는 행정규칙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기재부 소관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작업 전에 노동이사제 관련 지침을 발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왼쪽 사진). 브리핑이 끝난 뒤 윤 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 秋,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

“검찰 결과 ‘총장 비위’ 다수 확인”  
尹 “위법·부당...법적 대응할 것”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17면

추 장관은 24일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변호하기 위한 검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검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검찰방해 등 5개 주요 혐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

장을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올해 2월 대검 수사정 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해 판사들에 대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수집·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올해 5월 대검 검찰부에서 직접 검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에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대면조사 거부다.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 의사를 표시해 법무부 검찰담당관실이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에 대해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조치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박기영 기자 pgy@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컨벤션장에서 열린 미국시장협의회(USCM) 화상회의에서 참가자들과 이야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 美대선 20일 만에...바이든 정권인수 공식 착수

연방총무청 “바이든 승리 인정”  
재무장관에 엘리언 전 연준 의장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조 바이든 시대의 막이 올랐다.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23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의 11·3 대선 승리를 공식 인정했다. 대선이 치러진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 넘버(270명)를 넘기고도 절차상 문제로 삐걱거리던 바이든 정권 인수위원회의 정권 이양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에밀리 머피 GSA 청장은 이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1·3 대선의 명백한 승자”라고 인정한 후 정권 인수 절차 개시를 통보했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뜻을 굽히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던 주(州)들이 잇따라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하자 그동안 미적거리던 ‘트럼프의 사람’ 머피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조지아주에 이어 이날 미시간주까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한 것이 결정적 계기다. 이로써 미시간의 선거인단 16명을 보태며 바이든은 총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GSA의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통해 정권 이양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소송은 계속될 것이고 선의의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국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와 그의 팀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하도록 권고하며 우리 팀

도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투표 사기를 주장하며 불복 입장을 고수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권 이양에 협조할 뜻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인수위의 정권 이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절차적 문제가 해결된 만큼 바이든 인수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더 나은 재건’이라는 공약 지키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맞춰 이날 차기 행정부 주요 각료 인선을 발표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에 지명하는 등 인선에서부터 바이든 시대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옐런은 재무부 231년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내년부터>

## 학교 밖 청소년 4년간 44억 지원

서울시교육청, 마포에 거점형 도움센터 새로 조성

서울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월 1회 ‘검정고시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대학생 멘토링 확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 상담도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검정고시’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며 약 44억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투데이는 전국 약 24만 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처한 열악한 교육·방역 환경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획 보도를 한 바 있다. <11월 17일자 ‘코로나에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 기사 참조>

서울시교육청은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 지원단을 기존 56명에서 100명 규모로 확충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인력도 확충한다.

2022년부터는 여성가족부의 ‘꿈드림센터’ 등과 연계한 검정고시 지원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협의하고 지자체 및 각 기관과 민·관·학 협력을 위한 ‘학교밖 학생 지원 협의체’를 꾸릴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의 더 나은 지원을 위해 도움센터 기능·성과를 분석하고 마포평생학습관에 학습과 기타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학교밖 청소년 거점형 도움센터’ (학교 밖 미래학교)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내년부터 3년간 4억9000만 원이 투입된다. 손현경 기자 son89@

〈美 재무장관 내정자〉

〈연준 의장〉

# 엘런이 돌아왔다... 파월과 재정 확대 시너지 기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중시  
전·현직 연준의장 공감대 형성

진보·보수 불문 지지 가능성 커  
稅 개혁·국제 공조 회복 과제로

“엘런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에 재닛 엘런(74) 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은 일제히 이같이 보도했다.

엘런은 이날 발표된 여성 각료 지명자 중 가장 주목받았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231년 미국 재무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되며, 금융시장에서 가장 낮은 은 인물이어서 더욱 그랬다.

블룸버그통신은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했다”며 “중앙은행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미국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위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재닛 엘런 주요 약력	
1946	뉴욕 브루클린 출생
1971	에일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1997	대통령 경제자문위원
2004~2010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2010~2013	연준 부의장
2014~2017	연준 의장
2018~2020	브루킹스연구소 특별연구원
2021	미국 재무장관 (내정)



엘런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4년에는 연준의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서 4년간 연준을 이끄는 등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지닌 능력자다. 어떤 자리를 가든 ‘최초의 여성’ 타이틀을 달고 다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블룸버그통신은 엘런이 월가와 진보·보수 진영을 불문하고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날 바이든이 엘런을 정권 초대

재무장관에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미국 증시 S&P500지수는 1% 가까이 뛰었다. 금융업계와 보수 진영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좌파 성향 인사가 재무장관에 오를까 봐 경계한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대형 은행이나 부유층에 과도하게 우호적인 인사가 지명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게리 콘은 트위터에 “엘런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촉진에 필요한

통솔력을 발휘할 것을 확신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무장관으로서 엘런은 현재 미국 경제와 사회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세제 개혁, 은행 개혁 등 중책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 등 트럼프 정권에서 무너졌던 국제 공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도 맡는다. 바이든은 엘런이 그동안 쌓아온 해외 재무당국이나 중앙은행 수장들과의 두터운 인맥을 활용해 국제 공조를 재구축하는데 적극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4년간 2조 달러라는 거액의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 최대 규모로, 이에 대한 재원 마련 역시 재무장관의 몫이다.

문제는 정치력이다. 재무장관이란 자리는 경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정치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현재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의회에서 ‘트위스트 정국’이

계속되면 재무장관은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상하 양원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과도 호흡도 관심거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중앙은행의 역할이 컸지만 이후 경기가 안정되면서 연준의 역할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현재 연준은 장기적 제로(0) 금리 정책으로 운신의 폭이 좁다. 재정의 역할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파월 의장은 재정 확대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정부에 재정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경제학자 출신인 엘런과 금융권 출신인 파월의 의기투합에 대한 의구심이 컸지만, 기우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엘런은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여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우위로 놓고 있는 만큼 전·현직 연준 의장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엘런은 10월 19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이 여전히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안은 이례적으로 재정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 바이든의 첫 인사 키워드 ‘다양성·회복’

여성·흑인·중남미계 발탁... 트럼프식 ‘독주’ 탈피 다자외교로 선회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2주간의 버티기 끝에 조 바이든 당선인을 공식 인정하면서 바이든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동시에 바이든 정권 인수팀은 첫 인선을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신임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가안보보좌관엔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명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

안보부 부장관, 국가정보국(DNI) 국장엔 애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이 각각 지명됐다.

바이든 당선인의 첫 인선은 ‘회복’과 ‘다양성’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한 일방외교에서 벗어나 다자외교로 복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여성, 흑인, 중남미계 등용을 통한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의 20년 지기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국무부 부장관으로서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당선인과 정부 행정을 함께

경험한 적이 있다. 이번 대선에선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수석 고문을 맡았다.

블링컨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비판해온 인물로, 다자외교로 복귀해 동맹국 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전략과 노선을 같이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대사 지명자와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각각 흑인 여성, 중남미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마요르카스 지명자는 쿠바 출신으로, 어린 시절 카스트로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 바이든 외교안보팀 진용 구축

-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 국가정보국(DNI) 국장  
**애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 국토안보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
- 대통령기후특사  
**존 케리**  
전 국무장관
- 유엔 주재 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차관보

망명한 인물이다. 최종 임명될 경우 최초의 이민자 출신 국토안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이외에 헤인스 DNI 국장 지명자는 임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정보당국 책임자가 된다.

남은 인선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이다. 현재 미셸 플라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유력한 가운데 태

국계 미국인 테미 덕워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 중 누가 임명되든 국방부에서도 최초 여성 장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배경과 관점의 다양성 없이는 새로운 순간 큰 도전에 맞설 수 없다”며 “내가 이들을 선택한 이유”라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 맑고 깨끗한 우리 땅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서부발전의 <신재생로드맵 3025>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행복에너지 **CWP** 한국서부발전지주

# IBK노조 “경영권 침해” 벽 뚫고 ‘사외이사’ 자리 앉을까

## 속도 내는 ‘노조추천이사제’

최근 KB금융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되자, 금융공기업인 IBK기업은행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주를 설득해야 하는 민간 금융사보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은행장이 결정하는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윤종원 행장이 연초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점이 핵심 요소다. 노조추천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업은행 노조 속도전= 25일 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내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해 다음 달 사측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각오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이 중 김정훈·이승재 사외이사는 내년 2월과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다. 기업은행 노조는 두 자리 중 최소 한 자리는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앉히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 시기에 맞춰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현재 적절한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올해 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서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합의한 만큼 내년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사가 협상을 통해 금융권과 노동계 경협을 두루 갖춘 후보군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내년 초 사외이사 절반 ‘임기만료’ 노조 후보선정 위한 내부검토 착수

시중은행 주주 반발로 번번이 무산 정치적 이슈로 ‘경영권 개입’ 우려

역량이 있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시되고 있고, 디스커버리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된 KB금융은 우리사주 조합이 2명의 ESG전문가를 사외이사 후보로 결정했지만,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시장에선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종원 행장이 올해 초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윤행장은 노조와 합의를 통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의 적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주주없이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정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영간섭, 정치적 이슈로 변질 우려= 반면, 사측 등 일각에선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강성노조로 꼽히는 금융노조가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경영혁신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현황

연도	월	내용
2017년	11월	KB국민은행, 주주총회서 무산
2019년	3월	IBK기업은행,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
2020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IBK기업은행, 윤종원 행장과 노조가 도입 적극 추진 합의
	2월	KDB산업은행, 새노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시도
	8월	캠코,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및 최종후보 탈락
	9월	1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10월	10일 KB금융 노조, 사외이사 2명 추천
11월	20일	20일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
	28일	28일 캠코, 사외이사 3명 임기 만료 및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추진
2021년	2~3월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2명 임기만료 및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다. 노조추천 이사가 노조 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노사갈등 이슈를 이사회까지 끌어들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노조추천이사의 반대로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꼽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에 가는 전 단계로, 향후 노동이사제 논의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추천

이사제로 인해 정년연장과 임금인상 등 현재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이슈가 정치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거대 여당을 앞세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정치적 이슈로 도입될 경우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공기업 도입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경영권 침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9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현직 금

용노조 위원장이 여당 최고위원이 된 것은 처음이다. 박 위원은 같은 달 10일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했다. 민명덕 민주당 의원도 지원사격을 위해 동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라는 말과 함께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 우려도 나온다”며 “주주가 아닌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경우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야권서 더 서두르는 ‘3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3.6조 편성 ‘이슈 선점’ 당정 “가능성 열려있다” 여지 남겨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 논의도 본격화했다.

신종문과 적극론이 맞서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예산 및 처리시간 부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지원금을 반영하지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추가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관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안 처리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 손실 불가피 등의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안을 발표하고 3차 재난지원금에 3조6000억 원 규모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중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6대 민생예산에는 △전 국민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 △긴급 돌봄 지원

등 아이사랑 △약자와 동행 △농촌살림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1조 원 확보, 긴급돌봄 지원비 20만 원 일괄 지급, 소상공인 특별 지원 강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는 머뭇거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역시 이 위원장의 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건넌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 동시다발 감염에 n차 전파 섞여... 과부하 걸린 'K방역'

## 방대본, 역학조사 난항

사우나·주점 등서 신규 집단감염 동선·검사 꺼리는 유흥업소 맹점 전파자 일상생활 중 접촉 가능성 당국 "고의 수칙 위반, 엄정 대응"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진행되는 탓에 역학조사 역량에도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정오)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사우나(기존 감염경로와 별개)에서 22명,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에서 26명의 집단감염이 신규 발생했다. 기존 감염경로를 보면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해 6명(누적 62명),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교회와 관련해 23명(누적 99명)이 추가 확진됐다. 노랑진 임용단기학원 관련 확진자도 88명으로 7명 늘었으며, 수도권 온라인 친목모임과 관련해선 19명이 추가 확진(누적 39명)됐다.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확진자도 73명으로 19명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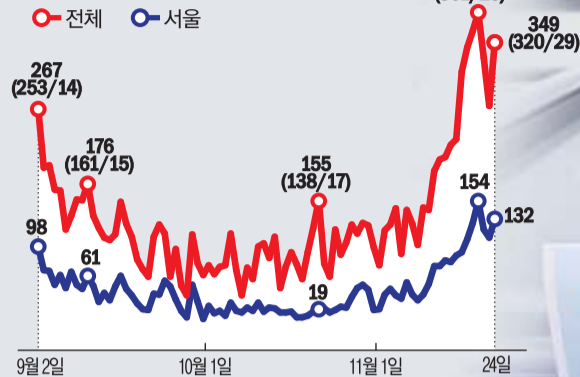
가장 큰 우려는 유흥업소를 통한 확산이다. 유흥업소의 경우, 가족·지인에게 유흥업소 종사·방문을 들길 것을 우려해 확진자가 동선·접촉자를 숨기거나 접촉자가

수도권 주요 집단감염 사례 (단위: 명, 24일 12시 기준)

집단감염 장소	추가	누적
서울 서초구 사우나 I	6	62
서울 서초구 사우나 II	22	23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마포구 교회	23	99
서울 노랑진 임용단기학원	7	88
수도권 온라인 친목모임	19	39
인천 연수구 유흥주점	26	27
인천 남동구 가족·지인	6	63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19	73

※ 출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단위: 명, 일일 0시 기준)



※ ( )는 국내/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3차 유행으로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각 기업체와 관공서 등은 재택근무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경기도 수원시청 행정지원과는 재택근무 실시로 인해 곳곳에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진단검사를 꺼리는 사례가 흔하다.

앞선 광주 상무지구 사례에선 확진자인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한 여성들이 업소에 다녀간 뒤 일주일 가까이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천 사례도 지표환자인 업소 이용자가 동선을 숨겨 뒤늦게 유흥업소 내 전파가 확인됐다. 초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동선 파악과 접촉자 격리가 늦어져 추가 전파 우려도 커진다.

이는 방역체계에도 부담이 된다. 1명이라도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면, 그 접촉자들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에서 추가 전파를 일으키게 돼서다.

뒤늦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터지면 감

염경로 역추적으로 최초 감염원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감염경로만 늘어나 역학조사 역량에도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들을 보면 일상생활 도중에 다중이용시설, 식당, 주점, 사우나, 헬스장,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출되고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며 "어디서 노출됐는지 몰라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만큼 추적관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노출자·접촉자들을 추적·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모임 자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한 검사가 선행돼야 우리 방역인력들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불씨를 찾아내고 방역망을 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고의로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분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감염병예방법령상 역학조사를 거부·회피하거나 거짓정보 등을 진술하면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엄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협조도 물론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역

학조사 추적을 위해서 관련된 법령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각 대학에 수학능력시험 이후 면접을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논술고사는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과 영상회의에서 "20대 환자 비율이 18%로 급증하고, 소수의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20대 젊은 층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대학에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민노총,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 현장에서

#### 국민 생명·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집회를 동반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애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시내 곳곳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선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을 조절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집회에서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단체식사, 단체이동 과정에서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마스크를 착용해도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얼굴이나 마스크를 만지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의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사람이 이동하고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산하조직들은 그동안에도 산발적으로 집회를 벌여왔다. 기획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부 등 정부세종청사 곳곳에서 '공공기관 처우개선' 등을 내세운 집회를 개최했다. 꾸준한 방역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이어왔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점을 들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고 주장하는 건 어폐다.

소극적인 여당의 태도도 문제다.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당시 보수 야당과 집회 참여자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구속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에 대해선 파업 자체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이 집회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랜 정부·여당의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전광훈 목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명분은 충분하다. 이익집단인 민주노총의 어떤 주장과 요구도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중요할 순 없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하필 연말에..." 외식·유통업 망연자실

"연말 대목이 사라졌다."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새해로 이어지는 연말연시.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식·유통업계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분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이라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2020년의 모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연말연시 모임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말 송년회 수요 어쩌나= 외식업계는 한 해 농사를 망쳤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송년회 등 연말 모임으로 반등을 노렸지만, 당장 영업 시간 제한에 따른 직격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뷔페 업계 관계자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안 되면 사실상 7시 넘어서는 가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며 "영업을 아예 못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연말 회식 특수는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도 송년 모임 등으로 예약이 꽉 찼던 뷔페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롯데호텔의 경우 이달 초 12월 주말 예약이 이미 마감된 상태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중전에 1, 2부로 나눠서 실시하던 디너 뷔페를 1부로 축소해 운영한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 등 오피스상권 대형 식당에는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여의도의 대형 구

### GS25 편의점 실적 추이

(단위: 원) ※( )는 전년 대비 성장률

구분	2분기	3분기
매출	1조7629억 (0.3%)	1조8786억 (3.3%)
영업익	702억 (-19.2%)	810억 (-8.8%)

### CU 편의점 실적 추이

(단위: 원) ※( )는 전년 대비 성장률

구분	2분기	3분기
매출	1조5491억 (2.10%)	1조6828억 (6.30%)
영업익	445억 (-27%)	637억 (-1.70%)

※출처: 금융감독원

### 음식점 밤9시 이후 포장·배달만 그나마 잡혔던 예약도 줄춰소 유통인구 감소에 유통업도 한숨

이전문 식당은 12월 초까지 예약이 거의 취소됐고 그나마 12월 중순 예약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다. 회식 후 이른바 2차 장소인 호프집과 주점은 더 울상이다. 역삼역 인근의 한 호프전문점은 "2.5단계 때 저녁 피크 타임에도 서너 테이블만 손님이 있을 정도로 한산했는데 이번에도 회식이나 송년회를 미루는 이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회식을 한다고 해도 가볍게 식사만 하고 끝내는 이들이 늘면 우리 같은 2차 매장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연말 특수에 세일도 하는데... 유통인구 감소에 편의점도 '쇼크' = 백화점도 최근 매출 회복세에 찬물이 끼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연말 특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연말 세일까지 접

쳤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백화점 매출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 확산세가 커지면 매출이 줄어들고, 확진자가 감소하면 반사익을 얻는 모습이다. 실제 연초 대구·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이 있었던 3월 신세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74%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는 0.78%로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지만,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다시 -13.63%로 미끄러졌다.

10월 이후 보복소비 심리로 매출이 상승세로 돌아선 백화점 업계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점이 더욱 아쉽다. 연말 정기 세일을 진행 중인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은 울상이다.

편의점들은 유흥가 및 학원가의 유통인구가 줄면서 관련 상권 매장의 타격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장마로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 장사를 망친 데다 코로나19 재확산에 4분기 장사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GS25의 2분기와 3분기 매출은 각각 0.3%, 3.3%를 기록하며 브레이크가 걸렸고, 영업이익은 -19.2%, -8.8%로 역성장했다. CU 역시 2분기와 3분기 영업익이 각각 27.0%, 1.7% 뒷걸음질치며 수익성이 악화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재택근무와 등교 제한에다 음식점 및 술집 영업을 제한되면서 유흥가와 학원가 점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상권별 분포 현황은 주택가가 46%, 유흥가 12%, 오피스 6%를 차지하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 그래도 희망 보인다...4000원짜리 백신 상용화 임박

아스트라제네카 '효과 최대 90%'  
저렴한데다 6개월 냉장보관 가능  
美 내달 11일 화이자 백신 접종  
인도·스페인 내년 1월부터 시작

주요 코로나19 백신 비교 가격 / 보관 가능기간(2~8°C) / 생산량(2021년)



전 세계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을 막을 백신의 상용화가 임박했다. 지극  
지극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옥스퍼드  
대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평균  
면역 효과가 70%라고 발표했다. 영국과  
브라질에서 2만3000명을 대상으로 3상 임  
상시험을 진행한 결과다.

'70%'라는 수치는 미국 제약업체 화이  
자,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효과가 덜한 것  
이다. 앞서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에 달한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모더나도 16일 3상 임상  
시험 분석 결과, 백신의 예방 효과가  
94.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 역시 투  
약 방법을 조절하면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백신 1회분의 절반

용량을 처음에 투약하고 한 달이 지나 1회  
분 전체 용량을 투약하면 예방 효과가  
90%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앞서 효과를 입증한 화이자와 모  
더나의 백신보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  
퍼드대의 백신에 더 우호적인 분위기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예방 효과에서  
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못 미치지만,  
가격과 유통 면에서 큰 이점이 있기 때문  
이다.

CNBC방송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장점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 번째는 저  
렴한 가격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회당 가격이 3~4달러(약 3300~4400원)

로, 화이자(20달러)와 모더나(32~37달  
러) 제품보다 저렴하다. 임상 시험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30억 회분을 회당 약 4달러에 공급하겠  
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경제성과 유통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화이자의 백신은 영  
하 70°C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해동

이후 표준 냉장 온도(2~8°C)에서는 약 5일  
간만 보관할 수 있다. 모더나의 백신은 화  
이자보다는 취급이 간단하지만, 영하 20°C  
에서 최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고, 일반  
냉장고에서는 30일간 보관 가능하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일반 냉  
장고에서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냉장 유통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등

에도 백신 공급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독립 규제기관인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  
청(MHRA)에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 상  
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MHRA 승인이 떨어  
지는 대로 본격 생산에 착수해 내년에  
30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백신 상용화가 임박하자 각국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개시 일정도 구체화하고 있  
다. 미국은 FDA가 화이자의 백신을 사용  
승인하는 대로 12월 11일께 접종을 시작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5월쯤엔  
집단면역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  
국도 MHRA가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 다  
음 달엔 접종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와 스페인은 내년 1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유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백  
신의 접종이 이미 시작돼 100만 명 가까  
이 맞은 상태다. 시노팜 백신을 구매한 브  
라질은 효능 분석 결과가 나오면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최혜림 기자 rog@

## K백신 '가속도'...SK바이오, 임상 진입

제백신, 임상2상 대량생산 계획  
SK·녹십자, 글로벌 백신 위탁생산  
정부 "연내 3000만명 물량 확보"

글로벌 제약사들이 잇달아 코로나19 백  
신 개발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 종식 기  
대감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백신 개발 기  
업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백신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에 진입했다. 다국적 제약사보다는 늦  
지만, 내년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의 상용  
화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백신 임상에 착수한 국내 기업에 SK바  
이오사이언스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23일 코로나19 합성항  
원 백신 후보물질 'NBP2001'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수차례에 걸쳐 검  
증한 비임상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빠르게  
'NBP2001'의 임상 1상을 시작하고 즉시  
후속 임상시험 준비에도 착수할 계획이  
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  
신'이다.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  
세포를 자극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  
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코  
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글  
로벌 제약사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백신보  
다 다소 늦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  
히 검증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제백신은 6월 임상 1/2a상 승인을 받아  
현재 임상 1상을 마쳤고 데이터 수집 및 분  
석을 진행하고 있다. 제백신의 'GX-19'은  
D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  
면항원 단백질 유전자(DNA)를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

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제백신 관계자는 "1상 데이터 결과  
를 식약처와 함께 검토하며, 2상 진입을 준  
비 중이다. 2상을 마무리한 뒤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엔  
임상 3상 진입, 9월엔 3상을 마무리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백신은  
2상에 진입하게 되면 대량생산을 위해 위  
탁생산(CMO) 업체들과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원생명과학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  
상시험계획을 제출했지만, 승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 물량도 관심거  
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000만 명분의 백  
신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  
업들이 백신 위탁생산까지 역할을 하면서  
백신 확보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국제 백신 개발·공급 프로젝  
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에 참여해 1000만 명분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이다. 이  
와 별도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  
카 등 백신 제조업체와 개별 협상을 통  
해 2000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와 확보 물량을 발표할 예정이다.

GC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  
로나19 백신 생산을 수주했다. GC녹십자  
는 CEPI와 5억 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체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  
스는 7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할 코  
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맺고 현재 백  
신을 생산 중이다. 8월에는 노바백스와  
위탁개발·생산(CDMO)에 합의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7월 복지부,  
아스트라제네카와 3차 간 협력의향서  
(LOI)를 맺고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의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에 협조키  
로 했다. 박민서 기자 only@

# 2분에 1명씩 굿앤굿

대한민국 어린이가 2분에 1명씩 가입하는 보험

최근 3년(2017~2019) 신계약 가입건수 854,776건 기준

230만 어린이를 지키는 이름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플래너를 만나보세요 ☎1588-5656 / www.hi.co.kr

※ 2019년 12월 기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유지계약 2,321,041건 (2004~2019년 가입)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령-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계약한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합의 심의필 제29031호(2020.03.27)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 “내년 수출 늘겠지만 환율 변동 따른 수익 악화 우려”

## 무협, 수출기업 조사

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수출 증가를 전망하면서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수출기업 801개사를 조사해 24일 발표한 ‘최근 수출기업의 환율 인식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3%가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간별로는 0~5%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 예상 평균 수출 증가율은 △석유

26.7% “환율변동 심화” 지적  
원·달러 1133원 ‘손익분기점’  
석유·반도체 호조, 선박 부진  
中企 환리스크 취약... 대비를

제품(6.0%) △반도체(3.2%) △철강·비철금속(3.1%)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1.9%) △선박(-2.4%)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이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지속’

(42.9%)을 가장 먼저 꼽았고, 그다음으로 ‘환율 변동 심화(26.7%)’를 지적했다. 최근 환율이 11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자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기업의 내년 사업계획 환율은 평균 달러당 1140원으로 조사됐다. 수출 시 최적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환율’은 1167원, 수출 시 ‘손익분기점 환율’은 1133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환율은 적정 환율, 사업계획 환율, 손익분기점 환율을 모두 밑돌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기업들의 수익구조 악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는 수출가격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 달러의 결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91.4%에 달해 대부분 환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손익분기점 환율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손익분기점 환율이 각각 1133원과 1135원으로 대기업(1126원)보다 높음에도, 중소기업의 61.1%, 중견기업의 33.9%가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환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대기업은

8.9%에 불과했다.

환율이 10%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 대부분은 상품단가 조정이 불가하다고 답했고, 환율 하락 시 응답 기업 65% 이상은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은 무역협회 연구원은 “미국 경기부양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환율이 111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함께 관련 지원책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새만금 사업 탄력 받나

### 동서도로 개통 이어 SK 2.1조 투자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SK컨소시엄이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만금은 기본계획상 올해 1단계 개발이 완료되지만 개발 진행률은 35%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및 SK와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점부(신시교차로)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 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 원을 투입,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16.5km 및 4차로로 건설됐다. 새만금의 핵심 교통축으로 물류 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 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조제 도로(33.9km)를 제외하고 최초로 개통되는 간선도로로서, 호남·영남·수도권 등에서 새만금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서도로는 25일 정오부터 개통된다.

이날 새만금청과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SK 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세균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 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신영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SK컨소시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혜택)로 받고 새만금 신항만에 2조1000억 원 규모의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 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SK그룹은 국내 최초로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관심이 큰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새만금청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산단 내 장기임대용지를 저렴(국공유 재산 가액의 1%)하게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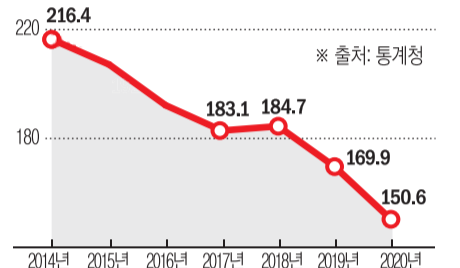
아울러 내년 중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모집에 순차적으로 착수해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삼을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24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SK 투자협약식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력단절여성 추이 (단위: 만 명, 4월 기준)



##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전년비 19.3만명 감소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20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혼과 저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될 계기가 줄어들어 데 더해 결혼·임신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여성도 줄어든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부기항목) 경력단절여성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이 15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3000명(1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혼여성이 26만6000명(3.0%) 줄었지만 비취업여성이 5만4000명(1.6%) 늘었다는 점에서 기혼여성 감소를 경력단절여성 감소의 원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사유별로 보면 결혼과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경력단절이 17만1000명 감소했다. 전체 경력단절여성 감소분 대부분이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결혼·출산 과정에서 일을 그만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경력단절 감소 사유를 크게 취업여성의 실업 감소와 기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증가로 봤을 때, 후자는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에서도.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에 경력단절여성으로 유입됐을 사람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가 크다”며 “경력단절이 되면 결혼을 많이 하거나, 출산을 많이 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기혼여성과 출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각종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장마·태풍에 유례없는 흉작... 정부양곡 37만톤 푼다

### 쌀 생산량 전년 대비 23만톤 ↓ 쌀값 상승... 수확기 이후 공급

역대급 장마와 태풍에 올해 쌀 생산량이 20만 톤 이상 감소하면서 정부가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정부양곡을 수급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0년산 쌀 수급안정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양곡 37만 톤 범위 안에서 시장에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올해 쌀 생산량은 350만7000톤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해 374만4000톤에서 무려 23만7000톤이나 감소했다. 평년 401

만2000톤에서는 50만5000톤이 줄었다.

쌀 생산량은 2015년 432만7000톤 이후 5년 연속 감소세이며, 특히 올해는 1968년 319만5335톤에 이어 가장 낮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생산이 줄면서 쌀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3일 기준 쌀 20kg 도매가격은 5만5780원으로 1개월 전(5만30원)보다 5%가 올랐다. 수확기에 가격이 되레 오른 것이다. 1년 전 4만7240원에서는 18%, 평년 가격 4만897원보다는 무려 36%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정부양곡을 37만 톤 범위에서 시장에 공급하되 수요 변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급 시기는 가급적 수확기

이후로 하고 일정 물량씩 나눠 공급한다.

산지유통업체를 통해 올해 공공비축미로 매입 중인 산물벼(건조하지 않은 벼)를 수확기 직후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해 부족한 원료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수급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한다.

다만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조곡 가격 결정 시기를 감안해 가급적 수확기 이후 나눠 공급하자는 의견과 산물벼 인수도의 경우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를 보완 대책에 반영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부족 물량은 가급적 수확기 이후에 공급하되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과 시기 등을 사전에 발표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가 80%·지자체 20% 부담

2017년 11월 15일 발생,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며 이 중 80%는 국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돼 이날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게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고, 관련 재원은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피해구제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인정, 지원금 범위 등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재심의 신청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특례도 마련됐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어려운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온 복지실천 · 자원봉사 · 효행가족 수상자

## 복지실천상



**김연희** 아동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가정해체 위기에 있는 가족에게 상담치료를 제공해왔다.(가운데)



**박영덕**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황덕경** 시각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화면해설 서비스를 도입했다.(왼쪽)

## 자원봉사상



**권혁기**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옥이** 요양병원과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이미용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가운데)



**박진관** 건축설비 명장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효행 · 가족상



**김순래**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차매를 앞던 시모와 4명의 자녀를 돌보았다.(가운데)



**모마리** 인도네시아에서 시집와서 청각장애를 가진 남편, 3명의 아들과 화목하게 생활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을 돕고 있다.(가운데)



**진선남** 몸이 불편한 남편과 딸을 돌보면서도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왼쪽)

## 제 32회 아산상 시상

- 아 산 상 여혜화
- 의 료 봉 사 상 민형래
- 사 회 봉 사 상 성모자애원
- 복 지 실 천 상 김연희 박영덕 황덕경
- 자 원 봉 사 상 권혁기 김옥이 박진관
- 효 행 · 가 족 상 김순래 모마리 진선남

## 2021년 아산상 추천 안내

시 상 부 문	인 원	상 금
아 산 상	1명	3억원
의 료 봉 사 상	1명	2억원
사 회 봉 사 상	1명	2억원
복 지 실 천 상	5명 이내	2천만원
자 원 봉 사 상	5명 이내	2천만원
효 행 · 가 족 상	5명 이내	2천만원

- 추천 가능한 기관  
전국 시·군·구청, 주민센터, 대학, 사회단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단체, 의료기관
- 추천서 접수  
- 접수마감 : 2021년 4월 23일(금)  
- 접 수 처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http://www.asanfoundation.or.kr>)  
- 문 의 :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02-3010-2564)



아산사회복지재단

<15곳 중 10곳>

# 공항 3분의 2 적자인데... 또 신공항 카드 꺼낸 정치권

### 야 '가덕도 특별법' 발의... 이낙연·홍준표 "대구·광주공항도" 신공항 규모 다 합치면 4대강 사업 맞먹어... "표심잡기" 비판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붓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7일 야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

법을 동시에 만들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항 개발 계획을 모두 합치면 대표적인 토건 사업인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맞먹는다.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 15곳 가운데 10곳이 거의 매년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고추나 말리는 공항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경남(TK)의 민심을 자극, 표를 얻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17일 김해신공항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을 뿐 가덕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은 이미 4년 전 경제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김해신공항을 뽑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11월 26일 배포한 김해신공항 Q&A에서 "V자 활주로를 신설해 산악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과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또 활주로 배치 최적화로 소음 영향을 최소화했다. V자 활주로를 신설되면 농경지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3800만 명 이상 여객 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장성 있게 공항시설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김해신공항이 최적이라는 것이다.

또 가덕도 신공항 개발에는 최소 10조 원이 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이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의 서쪽 끝에 있어 접근성도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 경제교사를 지낸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한국경제가 '사람이 먼저다'에서 '공항이 먼저다'로 급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행복주택 둘러보는 진선미 의원 (왼쪽)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24일 SH공사의 청신호 프로젝트 2호인 서울 구로구 오류동 '술에리움' 행복주택을 방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단독 의결

### 야 "5공 대공분실 부활" 반대

국회 정보위원회가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뤘다.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간첩 수사에 공백과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의실에서 나와 "경찰과 재결합은 5공 시대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데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과 협의를 계속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27일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년 유예 안까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서 유감"이라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이미 기자 jscs508@

## 김종인 "양극화 해결 위해 국민 힘 모을 것"

###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당내 개혁 입법 추진 촉구



외신기자 앞에 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질 양극화와 갈등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원내를 향해서는 진전없는 개혁 입법 추진 상황을 질타하며 당의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사진)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서 국제 정세와 외교 관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동시에 코로

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선 국민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통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양극화 현상을 두고 "한국도 가진 문제"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당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각도의 정책 대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원내 비대위원들을 향해 개혁 입법 상황을 두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두고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며 "모든 걸 다 걸고 혁신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상 기자 jooo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늘색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1년 70일 이상

아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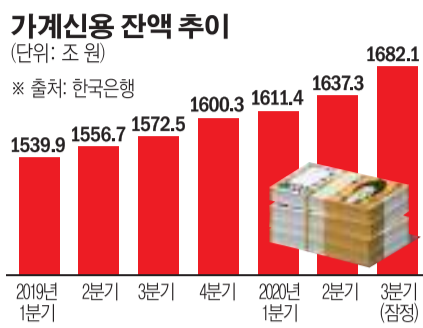
아이들이 파란 하늘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앞장섭니다.  
**함께 해주세요!**





# '빚투·영끌' 고삐 풀린 가계빚... 3년 만에 증가폭 최대

주택 매매·주식 투자 급증 여파  
3분기 증가폭 작년 대비 110%↑  
가계신용 잔액 1682兆 '최고치'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내 투자)로 가계빚이 사상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증가폭도 12분기만에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은 물론이거니와 비대면·온라인 거래 등이 늘면서 판매신용도 동반 급증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109조6000억원(7.0%) 증가한 168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증가규모는 2017년 3분기(+122조7000억원) 이후 3년(12분기)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며, 증가율은 2018년 2분기(7.5%) 이래 가장 큰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중 처분가능소득 증가율(3.2%)과 비교해서는 두 배 넘는 증가세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104조1000억원(7.0%) 증가한 1585조5000억원이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60조1000억원(7.2%) 늘어난 89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3분기(66조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증가율 기준은 2017년 4분기 7.6% 이후 최대).

기타대출도 44조원(6.8%) 증가한 695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이 또한 2018년 3분기(48조원, 8.2%) 이후 최대 증가세였다.

이는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추가상승과 함께 9월 카카오키페임즈와 10월 초 빅히트 공모주 청약에 위한 대

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3분기중 30만8619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9만7943호) 대비 1.5배가 넘는 거래량이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4분기 29만호를 넘어선 이래 올 1분기 32만5275호로 4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30만호를 전후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판매신용도 5조5000억원(6.0%) 늘어난 96조6000억원으로 3분기(2019년 4분기 95조7000억원)만에 역대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증가폭은 작년 4분기(5조6000억원, 6.3%)이래 가장 컸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비대면·온라인 구매가 증가한데다, 추석연휴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는 물론 기타대출도 늘었다. 빚투와 영끌 요인이 크다"며 "최근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4분기중 주택거래가 활발할지 지켜봐야해 향후 증가추세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금순환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올 2분기 현재 101.3%를 기록 중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코로나 반사이익' 보험사, 3Q 누적 순익 6.1% ↑

저축성 실적↑·자동차 손실↓  
작년보다 3195억 늘어 5.6배

올해 1~3분기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6.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축성보험 영업실적의 호조와 자동차·장기 손해를 하락이 보험사들의 순익 개선을 견인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1~9월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5747억 원으로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조1515억 원,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232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946억 원), 10.2%(224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4592억 원)에도 저축성보험의 영업실적 호조로 보험영업손실이 축소(4083억 원)된 데에 따라왔다. 같은 이유로 손보사도 이자수익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로 자동차 이용이 줄면서 보험영업손실이 5428억 원가 줄어 이익을 실현했다.

올 3분기까지 수입보험료는 152조42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조2975억 원) 증가했다.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81조5401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3%(3조3432억 원) 올랐으며,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는 70조8883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9%(3조9543억 원) 올랐다. 항목 별로 보면 생보사에선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각각 2조3391억 원, 1조3126억 원 늘었으며 손보사

에선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이 전년 대비 2조1045억 원, 1조5972억 원, 7565억 원 늘었다.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자산이익률(ROA)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0.59%를 유지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전년 동기보다 0.26%포인트 떨어진 5.47%로 나타났다. 9월 기준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1291조6306억 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5.6%(68조238억 원) 증가했다. 이중 자기자본(141조8177억 원)은 이익잉여금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자본 충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시중은행 최초로 화상상담 시스템을 적용한 신한은행의 '디지털 브랜치' 모습. 사진제공 신한은행

## 신한銀, 업계 첫 화상상담 시스템 도입

신한은행이 은행의 대면·비대면 채널을 융합한 미래형 혁신 점포를 선보인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화상상담 시스템을 적용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인 '디지털 브랜치'를 서소문 지점에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은 디지털과 콘택트의 합성어다. 디지털 브랜치는 고객이 화상상담 창구에서 전문 직원과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화상상담 부스 내에 대형 스크린과 화상상담용 카메라, 키패드, 손바닥 정맥 인식 장치, 신분증 및 인감 스캐너 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각종 상담 자료들을 보면서 실명 확인부터 업무 완결까지 은행 직원과 직접 대면하는 수준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디지털 브랜치는 금융 접근성 확대를 통한 고객중심 영업 추진을 위해 기획됐다. 2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신

한은행 디지털영업부 소속의 화상상담 전문 직원이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신해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 브랜치를 통해 고객과 금융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 서소문 지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소형점포 및 무인화점포 등 다양한 채널에서 디지털 브랜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능 업무의 범위도 현재 예적금 신규, 대출 상담에서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대면과 비대면 채널을 융합한 '디지털 브랜치'는 금융 접근성 향상 및 새로운 고객 경험 제공이 가능한 미래형 혁신 점포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고객중심 가치 제공을 위해 은행의 온·오프라인 채널 혁신을 통한 다양한 점포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언제

어디서나

HOME  OFFICE

#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트리밍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만나보세요(근태관리, CRM, PMS, 경비청구, 합법터, 도매인)

**DOUZONE** dt.wehago.com

비대면 서비스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전용 상담 전화 **02.6233.2000**

# LS, 3세경영 시동...구본혁·구본규 CEO 선임

〈에스코홀딩스〉

〈LS엠트론〉

을 임원인사 '조직 안정' 초점 해외사업·연구개발 인재들 승진 구동휘 전무, E1 최고운영책임자 정창시 전무, 예스코 최고경영자



구본혁 사장      구본규 부사장      구동휘 전무      정창시 전무

LS그룹이 오너가 3세들을 최고경영자(CEO)에 선임하는 등 2020년도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내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에 대비한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미래 준비 차원에서 해외사업과 연구·개발(R&D) 인재 승진에 방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LS는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사장 1명, 부사장 1명, 전무 6명, 상무 10명, 신규 이사 선임 13명 등 총 31명을 승진시켰다. 대부분 주요 계열사 CEO는 유임되었으나 LS엠트론, 예스코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 CEO는 신규 선임됐다.

LS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조직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임원인사를 실시했다"며 "특히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사업과 DT(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전환) 등 R&D 분야 인재들 다수 승진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LS전선, LS일렉트릭, LS-Nikko동제련 등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을 유임시킴으로써 현재의 조직 체제를 더욱 안정시키되, 일부 계열사는 차

세대 경영자 선임을 통해 미래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너가에서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며 CEO로, 구본규 LS엠트론 부사장(COO·최고운영책임자)이 CEO로, 정창시 예스코 전무가 CEO로 각각 선임됐으며, 구동휘 전무가 E1으로 이동하여 COO로 선임됐다.

구본혁 부사장은 고(故) 구자명 LS-Nikko동제련 회장의 장남으로 2003년 LS전선에 입사, (주)LS 경영기획팀, LS-Nikko동제련 자원부부장, 사업본부장, 예

스코홀딩스 미래사업본부장 등을 두루 거치며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했다는 평을 받아 예스코홀딩스 CEO로 선임됐다. 구 부사장은 지난해 LS그룹 3세 가운데 처음으로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으나 경영수업을 더 받겠다며 취임 열흘 만에 자진 퇴진한 바 있다. 구 부사장은 지난 1년 동안 미래사업본부장을 맡아 새로운 사업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규 부사장은 구자영 LS전선 회장의 장남으로 2007년 LS전선에 입사해 슈퍼리더 에식스(SPSX) 통상영업 차장, LS일렉트릭 자동차 아태평양(Asia Pacific) 영업팀장, LS엠트론 경영관리 COO 등을 거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LS엠트론 CEO에 선임돼 LS엠트론의 사업 터너라운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창시 전무는 1985년 극동도시가스에 입사해 예스코 경영지원부부장, 에너지사

업본부장, 사업본부장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도시가스 사업의 고객 서비스와 안전 등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아 CEO에 선임됐다.

구자영 LS그룹 회장 외아들이인 구동휘 전무는 2012년 우리투자증권에 입사해 2013년 LS일렉트릭 경영전략실 차장, 중국 산업자동차 사업부장, (주)LS Value Management 부부장 등을 거치며 쌓은 경험과 사업 가치 진단 및 운영 능력 등을 E1에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LS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 및 기술 경쟁력 제고 등 그룹의 미래 준비를 위한 변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해외사업과 R&D 분야의 기존 임원 승진과 신규 이사 선임의 비중을 늘려 해외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미래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세울지 사업부 꾸릴지 미정”

최정우 회장 “물류 업무 통합” 이사회에 연임 의사 밝히기도



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해운 물류업계는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 설립은 해운 및 물류사업의 발전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한국선주협회가 12일 “포스코가 그동안 추진했던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포스코는 곧바로 “설립 철회 결정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올해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포스코는 60년 대생 임원을 전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제철소 첫 여성 임원을 임명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안정을 추구하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파격 인사가 있을 수 있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내년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최 회장은 “환율, 코로나19, 바이든 당선 등 모든 것이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은 6일 이사회에 연임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사회는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최 회장에 대한 연임 자격 심사에 들어간다. 사외이사 7명 전원으로 구성되는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회장에 대한 자격 심사를 약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현영대 기자 yeongdai@

기아차 ‘구독’ 카니발 등 추가 서울 이어 부산으로 지역 확대

기아자동차가 구독서비스인 ‘기아플렉스(KIAFLEX)’에 K9, 스텔러, 모하비, 니로·쏘울 전기차 등 기존 서비스 대상 차량 이외에 4세대 카니발, 스텔러, 쏘렌토 하이브리드 3개 차종을 추가하고, 카 라이프 연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아플렉스’는 임대 보증금이나,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없이 월 구독료를 내고 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아차 최초의 구독형 서비스로,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약 3200명의 누적 가입자를 확보했다.

차종 확대와 함께 서울지역에 한정되던 서비스를 부산지역까지 확대 운영한다. 부산지역은 K9 차종을 시작으로 향후 수요에 따라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아차는 프리미엄 방문 세차인 ‘인스타워시’ 이용 할인권과 주말 변화가에서 대리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주차대행서비스 ‘잇차’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카 라이프 연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특히, 구독 차량과는 별도로 매월 1회씩 최대 72시간 이용할 수 있는 카니발 익스피어리언스 서비스 이용 시 차량용 캐리어 전문 업체인 ‘톨레(THULE)’의 카 캐리어를 추가로 대여한다. 기아차내달 31일까지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커피 쿠폰과 구독료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 두산인프라 매각 본입찰 현대중·유진그룹 2파전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이 현대중공업그룹과 유진그룹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 증권이 이날 진행한 본입찰에 현대중공업지주·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그룹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적격 예비인수후보(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GS건설과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등은 본입찰에 불참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매각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07%로 시장에서는 매각 대금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은 인수 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공동 딜러망 구축으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탑 메이커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특히 전기

굴삭기, 무인·자동화 등 미래기술 관련 플랫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지금보다 앞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품에 안게 되면 국내 건설기계 시장은 현대건설기계와 볼보건설기계의 ‘빅2’ 체제로 재편된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사업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타 인수 후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을 비롯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 재무적 투자자(FI)와 DICC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심에서는 FI가 승소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날 본입찰에 불참한 인수 후보들은 “추후 변화가 있거나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관심을 완전히 거두지 않았다.      이주혜 기자 winjh@

## LS전선, 신재생에너지 케이블 사업 박차

국내 30여곳 태양광 케이블 공급 덴마크 해상 풍력 개발사와 계약



전남 고흥 남정수상태양광.

LS전선이 24일 최근 태양광 케이블의 국제 기술,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태양광 관련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LS전선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를 비롯해 전북 군산 유수지 등 30여 곳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 케이블을 공급했다. 특히 해저 케이블의 노후화를 활용한 수중 케이블을 개발, 수상 태양광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 가고 있다. 수중 케이블은 기존의 물 위에 부표를 띄워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을 개선, 물속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선박이 이동이나 어획 활동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LS전선은 강원도 동해시 해저 케이블 사업장에 실제 수중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케이블의 성능 테스트를 진행, 품질을 확보했다. 태양광 발전소는 25년 이상 가동되는 특성상 혈관 역할을 하는 케이블 품질의 신뢰가 중요하다.

회사 측은 “국내 태양광, 풍력 사업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관련 케이블의 기술 기준과 안전 규정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LS전선은 태양광 패널용 와이어 시장도 확대해 가고 있다.

LS전선은 2014년 세계 최초로 고효율

멀티 와이어를 양산, 국내외 주요 태양광 패널 제조사에 공급해 왔다. 기존 리본 와이어에 비해 태양광을 가리는 면적이 작고 태양광 모듈의 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납(Pb)을 제거한 친환경 와이어도 공급한다.

해외에서도 태양광 관련 사업 참여가 늘고 있다. LS전선의 베트남 생산법인 LS비나(LS-VINA)는 2019년 베트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총 5000만 달러 규모의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중부 지역에 건설되는 1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중, 저압 케이블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베트남 정부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베트남 1위 전선업체인 LS전선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S전선은 이날 세계 1위 해상풍력 개발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Ørsted)사와 ‘5년간의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SK머티리얼즈, 日 합작사 세워 OLED 소재 진출

SK머티리얼즈는 일본 JNC 코퍼레이션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합작사(JV)를 설립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SK머티리얼즈는 24일 자회사 ‘SK JNC’ (가칭)의 주식 4만8800주를 244억 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SK JNC는 SK머티리얼즈의 100% 자회사로 일본 JNC가 향후 제3차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JV 설립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지분은 SK머티리얼즈가 51%, JNC가 49% 보유하게 된다.

SK머티리얼즈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OLED 소재 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

폴리오 다변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 모델을 OLED 소재까지 확장하게 됐다.

OLED 소재는 연평균 성장률이 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성장 시장이다. 시장조사업체 DSCC는 OLED용 재료 시장 규모가 지난해 9억5100만 달러에서 2024년 26억8800만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SK머티리얼즈가 손을 잡은 JNC는 청색 OLED 소재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eug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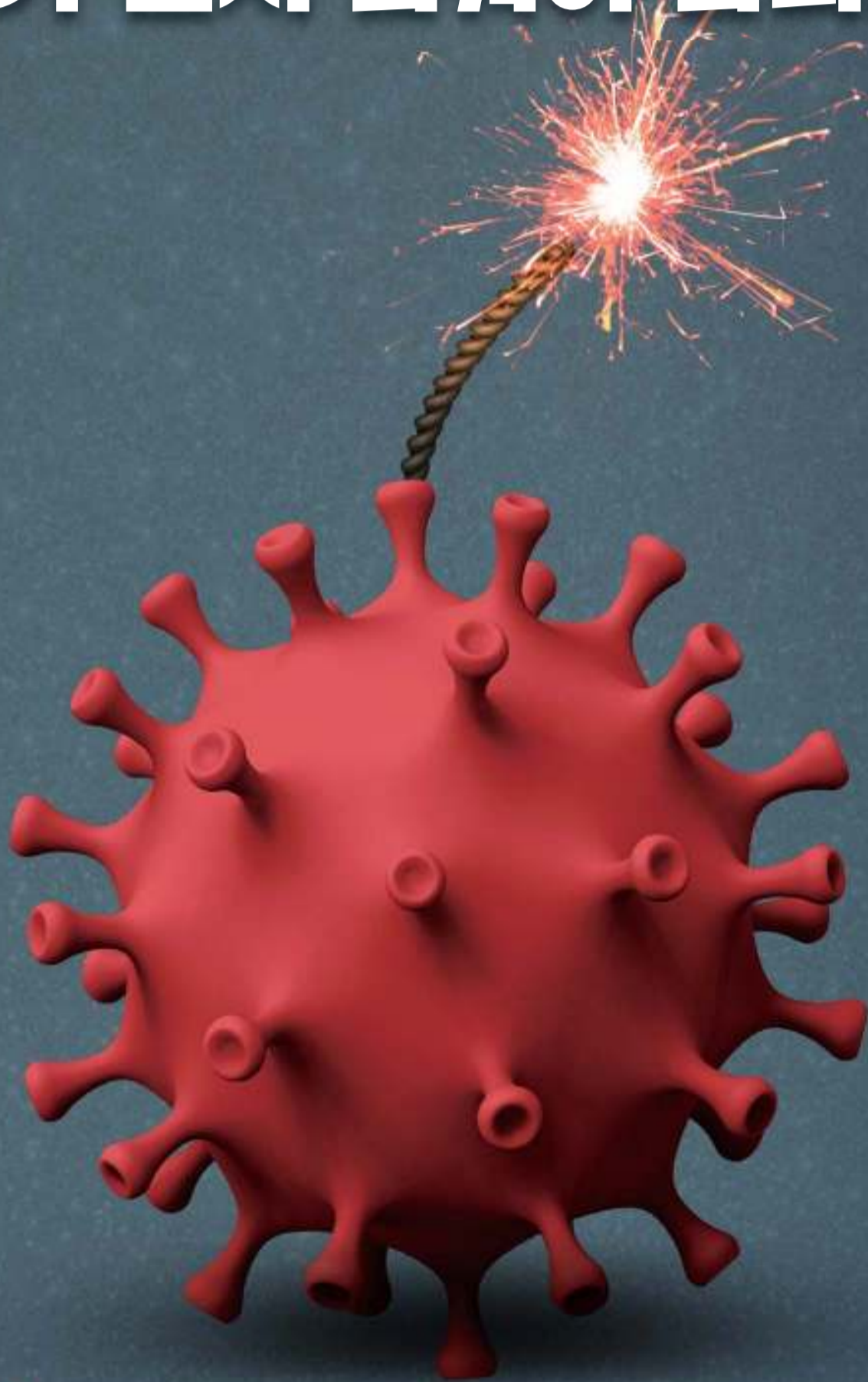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2020.12.31.까지)

이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 멈춤'  
시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참여가 절실합니다

## 연말연시 5대 행동수칙

- ① 2시간마다 환기 ② 송년모임 자제 ③ 밀폐 장소 오래 있지 않기
  - ④ 의심되면 즉시 검사 ⑤ 마스크 착용 & 손 소독 철저
- 문의 ☎ 02-120

# KT “소상공인 상권 분석해드려요”... ‘B2B’ 사업 강화

‘잘나가게’ 서비스 페이지 구축 완료... 이달 말 공식 출시  
상권·유동인구 등 분석하고 동종업종 매출 추이도 알려줘  
기존 ‘빅사이트’ 솔루션과 달리 소상공인 맞춤 정보 제공

KT가 소상공인 상권 분석 서비스 ‘잘나가게’를 이달 말 공식으로 선보인다. 기업 간거래(B2B) 사업 확대를 공언한 KT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DX)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24일 KT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권 분석 서비스 ‘잘나가게’는 서비스 페이지가 구축 완료된 상태다. 공식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다. ‘잘나가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권 정보와 그에 따라 영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상권 분석 △유동인구 분석 △동종업종 매출 분석 △경쟁 환경 분석 △창업 뉴스 등을 제공한다.

유동인구 분석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를 상세 분석한 자료와 최근 1년간 추이를 제공한다. 경쟁 환경 분석은 경쟁 점포

수, 최근 1년간 경쟁 점포 추이, 경쟁점포 평균 영업 기간 등을 제공한다. 매출에 관련한 부분은 업종 성장률, 최근 1년간 동종 매출 추이 등이 포함된다. 뉴스레터처럼 창업, 부동산 관련 뉴스도 보내준다. 업종별 프랜차이즈 관심 랭킹, 급상승 랭킹, 부동산 동향, 주제별 랭킹, 창업 뉴스 등이 발송된다.

이 같은 정보는 문자로 발송되며, URL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KT는 오픈 초기 일정 기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잘나가게’ 서비스는 B2B 사업 분야를 키우겠다는 KT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지난달 KT는 새 B2B 브랜드를 선보이며 B2B 시장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ABC



구현도 KT 대표가 ‘인공지능/디지털혁신(AI/DX) 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역량(AI, BigData, Cloud)’으로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언론간담회에서 전홍범 KT AI/DX융합 사업부부장 부사장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상권 분석 서비스를 곧 출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8월 KT는 AI·DX 데이를 열고, ABC사업

현황과 계획을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김재희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은 ‘AI·빅데이터 사업현황 및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특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동반자 역할’을 KT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KT는 이미 자사의 빅데이터 솔루션인

‘빅사이트(BigSight)’에서 상권분석솔루션(GrIP)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대형 마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입점 위치 선정, 상품 설계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반면 잘나가게 서비스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동네 작은 자영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는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상권 정보시스템 고도화 시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KT는 9월 통신사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다. 당시 KT는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 분야에서도 지원을 약속하며 소진공의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에 협력할 의지를 내비쳤다.

소진공 관계자는 “유동인구 빅데이터 부문에서 2005년부터 SKT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고 있는데 연속성 문제 때문에 기간 변동이 없었다”며 “향후 보완하는 식으로 KT와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개인정보 보호’ 청사진 나왔다

개인정보위,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 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제공,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3대 추진 전략으로 꼽혔다.

우선 국민·기업·공공부문 주제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겼다.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확대한다.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 가운데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시행됐지만,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기술의 환경에 맞춘 새로운 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인공지능·클라우드·자율주행 등 규제 샌드박스에서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소은 기자 gogumee@

## 네이버 “중소사업자-창작자 협업 1800억 지원”

내년 상반기 비즈니스 플랫폼 ‘브랜드 커넥트’ 출시  
한성숙 대표 “아티스트·마케팅 ‘윈윈’ 사업모델 구축”

네이버가 활동하고 있는 480만 명의 중소기업자(SME)와 160만 명의 창작자를 서로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앞으로 2년간 1800억 원을 투자한다.

네이버는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판매자와 지식iN 엑스퍼트 전문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성숙(사진) 네이버대표는 “연결은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며 “오프라인에서는 유명 아티스트와 빅 브랜드 간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반면, 작은 규모로 사업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은 서로를 발견하고 협업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네이버에서는 이미 방대한 스펙트럼의 SME와 창작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검색, AI 추천, 데이

터 등 다양한 기술과 플랫폼이 SME와 창작자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기술을 통해 비즈니스와 창작 활동을 연결해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시너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와 1000여 명의 지식iN 엑스퍼트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는 ‘엑스퍼트 for SME’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판매자들이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는 사업 성장 단계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문분야의 고정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다양하게 발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 창작자와 브랜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연결 플랫폼을 구축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창작자 중심의 검색 서비스인 ‘인플루언서 검색’을 출시한 이후 꾸준히 창작자 보상 프로그램을 강화해왔다. 이 같은 성과를 발판삼아 내년 상반기 중 창작자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활동의 기회 마련, 브랜드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창작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브랜드 커넥트’ 플랫폼에서는 창작자 활동 현황, 최신 콘텐츠 등의 데이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케팅 개념이나 특성에 따른 브랜드와 창작자가 서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 파이낸셜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SME의 빠른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최근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빠른 정산’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를 내달 초 정식 서비스로 전환해 SME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사내 ‘분수펀드’를 통해 SME와 창작자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앞으로 이들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자 2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목표다.

조성준 기자 ti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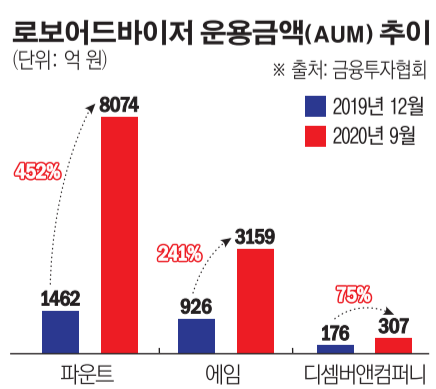
##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3사, 운용액 1兆 돌파

AI투자 ‘파운트’ 8074억으로 최다  
저렴한 수수료·안정적 성과 ‘인기’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가 주목을 받으면서 비대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요 3사의 운용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투자협회 3분기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투자 전문기업 파운트의 운용금액(AUM)은 8074억 원으로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상위 1% 자산관리를 표방하는 에임은 3159억 원, 엔씨소프트가 투자한 디셈버앤컴퍼니는 307억 원이다. 3개사의 총 운용금액은 1조154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운용금액은 △파운트 1462억 원 △에임 926억 원 △디셈버앤컴퍼니가 176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3분기 성장률을 비교하면 △파운트 452% △에임



241% △디셈버앤컴퍼니 75% 수준이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의 성장세는 기복 없는 안정적인 운용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 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전 세계 주요 주가지수가 -35% 내외 폭락했지만 파운트의 경우 -25% 하락 방어 후 5월에

는 연초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했다.

기존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기존 금융권에서 판매가 이뤄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대거 몰렸다고 분석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인공지능알고리즘을 이용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자동으로 자산을 배분해 주는 서비스다. 과거 고액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었던 PB 서비스를 저렴한 수수료에 소액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어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분야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제공하는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모든 상품을 클릭 몇 번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업체별 자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전 세계 경제의 수치화된 정량적 지표와 비정량 데이터까지 분석하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추천, 안정적인 운용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상품은 10년 전 출시됐지만, 자산운용 자문이나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운용사 등의 펀드·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었지면서 성장세를 키웠다.

시장조사 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는 세계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자산 규모가 올해 1조4000억 달러(1556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에는 2조5000억 달러(2779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e쿠폰·마스크·아날로그 시계...

# 코로나가 바꾼 '수능 응원 선물'

떡·엿에서 비타민·핫팩 거쳐 부정 차단 아날로그 시계 이어 방역키트·언택트 선물 인기

수능 시험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수능 선물' 풍속도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떡·엿 등 전통적인 수능 선물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수험생들의 방역·건강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마스크, 무릎담요 등 기능성과 보온성을 강조한 상품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열풍'이 거세진 데 따른 비대면 마케팅도 활발하다. '수능 선물'이 시대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학력고사 시절엔 떡·엿 강제·학력고사를 치르던 시기엔 원하는 대학에 '붙는 것'이 중요했다. 이 때문에 당시엔 '적적 붙으라'라는 의미에서 엿이나 찹쌀떡이 수능 선물로 강세를 보였다.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입시 전형이 바뀐 뒤 문제 푸는 방식이 오디션다형으로 교체되면서 '잘 찍고 잘 풀아라'란 의미의 포크, 휴지 등이 수능 선물로 떠올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웰빙' 열풍이 불면서 몸 상태 관리에 도움을 주고 건강 기능이 강조된 선물이 주목받았다. 비타민, 핫팩, 무릎담요 등이 그 주인공이다. 간편하게 허기를 채우고 머리도 잘 돌아가게 해주는 다크 초콜릿도 인기였다.

이후에는 전자시계, 스톱워치 등 '실용템'이 인기였다. 하지만 부정행위 우려에 2016년부터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자 아날로그 시계인 일명 '수능시계'가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다.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했기에 '수능 시계 추천템'으로 카시오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나온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주목받았다.



◇코로나19에 마스크 등 방역키트=24일 G마켓에 따르면 9~22일 최근 2주 동안 건강식품, 발란로, 안마용품 등 수능 관련 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9%, 19%, 23% 늘었다. 특히 기타 영양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2% 큰 폭의 판매 신장률을 보였다.

GS리테일은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선물 및 행사를 기간별로 순차 진행한다. 먼저 KF94 마스크 10개입으로 구성된 '고마워마스크세트'를 삼성카드를 무료 증정하는 1+1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어 합격찰떡 6입, 8입, 10세트 상품을 26일부터 선보인다. 다음 달 1~3일까지 로쉐 기획 세트 11종을 2+1로 묶어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전개할 계획이다.

롯데푸드는 '합격돼지바' 캠페인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수능이 연기되고 등교를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을 응원하는 이벤트로, '돼지바 수능 합격키트'에 마스크 용품을 추가했다. 합격 돼지바를 구매한 뒤 인증사진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합격돼지바, #돼지바 이벤트 해시태그를 달면, 이벤트 참여자 500명에게 돼지바 수능 합격키트 1000개를 전달한다.

비대면 마케팅도 활발하다. CJ푸드빌의 푸레주르는 수능 응원 제품인 '럭키 스마일'을 선보이며 모바일 교환권 사전 예약 및 구매 고객에게 풍성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 '럭키 스마일' 수능 선물세트 '꿀맛, 합격맛(대)'와 '행운길만 겐자(중)'를 준비했다.

파라바게뜨도 위글위글과 손잡고 내놓은 '2020 수능선물세트'에 언택트 마케팅을 더했다. 수험생들에게 비대면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달·픽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 하이트진로, 프랑스 유기농 와인 3종 출시

남부 프랑스의 유기농 내추럴와인이 수입된다.

하이트진로는 프랑스 남부에서 생산된 내추럴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유기농 와인은 '유기농법' 규정에 따라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인공적인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내추럴와인은 포도 재배부터 와인 양조까지 인간의 손길을 최소화해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만들어진 와인이다.

남프랑스의 천재 양조가 제프 까렐(Jeff Carrel)이 만든 '아뷰드네 2018 (A Vue de Nez)'은 천연효모만으로 발효하고 이산화황을 첨가하지 않았다. 샤또 보첸(Chateau Beauchene)은 프



랑스 남부 론 지역에서 18세기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된 전통의 와이너리다. '샤또 보첸 코트 뒤 론 성실핏(Cotes du Rhone Sans Sulfites) 2019'는 샤또 보첸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내추럴와인으로 총 3800병 한정 생산했다.

'본투비와인(Bornto be Wine)'은 1891년부터 남프랑스 랑그독 꼬르비에르 부르냐에 정착해 와인을 생산해온 가족 경영 와이너리 샤또 오이유 로마니(Chateau Ollieux Romanis)의 제품이다.

내추럴와인 3종은 12월 초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및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내 와인샵을 통해 판매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자동차까지 파는 티몬·G마켓

이커머스들이 자동차로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G마켓이 자동차리스 상품을 내놓는가 하면 티몬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중고차 판매에 나섰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스마일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리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특별 우대 기획전인 만큼 업계 최저가 수준에, 빠른 배송을 보장한다. 캐시백 등 과격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를 통해 인기 국산 브랜드 차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용 기간은 48개월 또는 60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월납입료는 기존 자동차 금융상품 대비 저렴하다. 배송도 빠르다. 인기 차종의 경우 한정수량으로 2~3일 내에 받을 수 있고, 일부 차종을 제외한 대부분은 최대 1개월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구입은 온택트(온라인+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12월 6일까지는 스마일클럽 전용 기획전인 '스마일클럽 온에어' 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접속 시 자동차리스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본인 인증 후 차량을 선택하고 이용 기간, 주행 거리 등 조



### G마켓 '자동차리스 프로모션' 티몬, 특A급 중고차 9대 판매

건을 설정하면 자동차리스 가능 여부 및 전적이 조회된다. 계약 신청 시 상담원과 전화 연락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티몬은 25일 오전 11시 티비온을 통해 특A급 수준의 중고차 9대를 판매한다. 모두 2017~2020년도에 출시된 최신 모델로 신차에 가까운 주행거리 1만km대의 매물도 포함됐다. 티몬 고객들은 실시간 영상과 채팅의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꼼꼼히 매물을 따져본 후 동급 차량의 시중가격 대비 최대 150만 원 저렴한 특가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티몬이 이번에 판매하는 매물은 중도 반납 또는 완납된 리스-렌트 차량이다. 티몬은 입점 파트너인 '마이카옥션 박차'와의 협업을 통해 B2B 위주로 거래되던 매물을 확보, 동급 대비 최저가 수준의 차량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매입사를 거치지 않아 중간수수료를 최소화한 덕분이다.

판매 차량 9대 중 5대가 주행거리 3만km 미만일 정도로 차량 상태가 우수한 신차급 매물들을 선정했다. 주요 판매 차량은 '제네시스 GV80(2020년식)', '벤츠 E220d(2019년식)', 현대 '그랜저 IG(2019년식)'와 '싼타페 더 프라임(2017년식)', 'BMW 미니쿠퍼 컨버터블(2019년식)' 등이다.

티몬 관계자는 "이번 티비온 판매는 선별된 차량만을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해 수많은 중고차 매물 앞에서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며, "티몬은 우수한 상태의 한정 매물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최저가 수준의 중고차 특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현대백화점 판교점 '피아제' 금빛 트리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21일까지 판교점 1층 중앙광장에서 146년 전통의 스위스 럭셔리 주얼리·시계 브랜드 피아제(PIAGET)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피아제가 국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10m에 달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금빛 트리에 피아제 로고와 주얼리로 꾸며졌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SNS 인증샷 딱이네" 롯데월드몰 '3355' 오픈

### 감성 매장 한곳에... MZ세대 위한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

롯데월드몰이 새로운 콘셉트 공간을 선보이며 MZ세대 사로잡기에 나선다.

롯데월드몰은 24일 지하 1층에 약 2500㎡(750평) 규모로 '3355'를 오픈했다. 기존 마트 매장을 식사와 디저트, 나아가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3355'는 디저트·글로벌 맛집을 포함해 클래스·취미 등 총 16개 브랜드로 구성되는 편집존이다.

'3355'는 MZ세대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롯데월드몰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간으로, MZ세대들이 선호하는 '힙'한 상권의 핫플레이스를 한 자리에 모았다. 을지로와 성수동 등에서 유명한 매장들을 유치했다. 이색 디저트, 드로잉 등 고객들이 경험 가능한 콘텐츠도 다채롭다.

또 스토리텔링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운다. '3355'는 '삼삼오오 모여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단순하게 맛집을 모은 편집존을 넘어 공간을 매개로 한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젊은 고객들은 '3355'의 예쁜 음식과 매장 사진을 SNS에 올려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다. 또 체험 공간은 가족, 애인들과 여가를 즐기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쉼터로 조성한다. 클래스에



서는 강사 또는 수강생들과 클래스 내용을 공동 분모로 대화의 꽃을 피운다.

롯데월드몰은 SNS에 친숙한 MZ세대를 겨냥해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 강자로 소문난 매장을 '3355'에 총망라했다.

을지로에 본점이 있는 디저트 카페 '분카샤'는 빵 사이에 딸기, 키위 등을 넣은 후르츠산도를 선보인다. 후르츠산도는 맛뿐만 아니라 사진을 부르는 비주얼로 고객들의 시선을 끈다.

말차 전문 '슈퍼말차'는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한 매장이자, 국내산 보성 말차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달콤함을 추구한다. 말차 라떼, 차이·코코넛 말차 등 음료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다.

또 '3355'에는 단순한 커피를 넘어 감성을 더한 커피로 유명한 매장이 등장한다.

27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바리스타 '이강빈'이 운영 중인 '씨스루'는 마시는 커피에 보는 맛을 더한다. 커피 위에 얹은 크림에 그림을 그려 넣은 '크리마트'는 고객들의 인증샷을 부른다.

하와이의 맛을 담은 '하와이 사자 팩토리'는 인테리어를 이국적으로 꾸밀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커피로 꼽히는 하와이 코나 커피를 판매한다. 커피와 함께 하와이 전통 레시피로 만든 '말라사다' 노릇도 구매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해외를 가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로할 글로벌 레스토랑들도 대거 상륙한다. 동남아 음식, 멕시칸, 중식 등 글로벌 푸드는 물론 하와이 샐러드 등 건강식을 다채롭게 갖춘다.

한국의 치폴레(미국 멕시칸 푸드 프랜차이즈)로 불리는 캐주얼 멕시칸 푸드 전문점 '이터스'와 베트남 요리를 한국인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츄츄'이 입점한다.

먹거리 외에도 취미와 여가를 즐기는 쉼터 같은 공간도 마련된다. 누구나 '미켈란젤로'가 될 수 있는 드로잉 카페가 문을 연다. 드로잉 카페 '성수미술관'에서는 쉽게 회화에 도전 가능하다. 이색적인 데이트 코스를 원하는 커플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外人' 끌고 '대장주' 밀고... 코스피 또 날아올랐다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코스피는 23일 2602.59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24일에는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한꺼번에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2628.52까지 뛰어오르며 신기록을 세웠다. 종가는 2617.76이었다.

시장을 이끄는 마차는 외국인(14거래일 연속 순매수)이다. 바이든 시대 개막과 구체화되는 바이오노믹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대감, 원화값 강세 등의 훈풍을 타고 '외국인'들이 대거 주식 시장으로 입성하고 있다. 외국인의 순매수로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관련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원화

2617.76... 이틀째 역대 최고치 돌아온 外人, 14거래일째 '사자' 삼성전자·LG화학·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 일제히 상승 12월 개인 매도물량은 부담요인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도 꺾일 수 있고, 내년 12월 쏟아지는 개인 물량은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외국인이 돌아왔다"= 11월에만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1416억 원 순매수했다. 월별 기준으로는 4개월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한 것이다. 달러 약세로 신흥국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 개선세가 외국인의 투자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수급은 반도체, 은행, 소재,

### 주요 증권사 내년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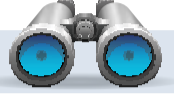
① 내년 코스피 지수 전망 ② 추천종목

**메리츠증권**  
① 2250~2800  
② 반도체, 전기차(자동차·2차전지) 관련 산업

**신한금융투자**  
① 2100~2750  
② IT, 소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NH투자증권**  
① ~2800  
② 반도체, 화학, 운송, 면세점, 의료

**하나금융투자**  
① ~2700  
② 반도체, 화학, 조선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에 집중돼 있다. 한국 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선반영 중인 것이다.

운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은 실적 가시성이 높고, 경제 활동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를 사들였다. 이러한 추세는 내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중 내년도 상반기는 반도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자동차와 2차전지 등 전기차 관련 업종, 경기소비재 등에 대한 투자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했다.

◇"12월은 부담스러울 수도"= 현재 코스피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가치) 부담이 야기도 나온다. 2021년 기준으로 코스피 주당순자산비율(PBR)은 1.01배, 주가수익비율(PE)은 13배로 역사적 고점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만 증권업계는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구간이라고 말한다. 이상민 카카오페이 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지수의 PBR은 0.8배에서 '하향 안정화' 되었지만 내년 코스피 상장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이 11.37%로 올해보다 6.23%포인트(p)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상승은 기술의 확산 시기에 관찰되는 '구조적 강세장'이라고 말한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자동차, 스마트폰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하고 대중화되는 시기에 주가가 평균 6년 정도의 강세장을 보였다"면서 "특히 한국 시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2차전지, 위탁생산(CMO),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기술혁신과 대중화 사이클로 접어들수록 국내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12월 개인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도 고려해야 한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팀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9년 코스피 월별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12월 지수 상승률은 40%에 불과하다고 했다. 더군다나 올해 주가 상승으로 상당한 차익을 거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12월에 개인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 손영지 기자 eoml@

## "EY한영, 집안 단속 못하면서 남의 살림 걱정?"

임원 수습역 원대 횡령 의혹에 즉답 피해... 조사여부도 안밝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강조하더니 회계 감사기관 신뢰도 '치명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EY한영의 경영지원 임원이 회삿돈을 ATM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횡령 규모도 수습역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계업계는 피감기관인 기업들이 내부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 부담을 호소할 때마다 내부직원들의 탈·불법을 감시하는데 꼭 필요하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집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EY한영 경영지원본부 A 임원이 내부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규모는 작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도 전해진다. A씨는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 근무 경험을 토대로 HR·재무·총무를 총괄하는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퇴사를 회사에 통보했으며 인수인계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남아있

을 예정이다.

EY한영 관계자는 횡령설에 대해 "답변이 제한된다"며 즉답을 피하면서 "최근 A 임원은 개인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 말을 아꼈다. 내부 조사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의혹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EY한영 익명 게시판(블라인드)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회계업계에선 "의혹이 풀리지 않았는데 퇴사한다고 덮을 일이나. 회사 차원에서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 "수습역 원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등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내 빅4 회계법인인 EY한영은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신뢰성에 금이 갔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횡령과 부

정 등을 자체 적발해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EY한영 역시 지난해 10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도 내부회계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앞장서왔다.

한 상장사 IR 관계자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강조한 감사기관조차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데, 누굴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회계업계가 말한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 평가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주는 부담감도 이번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회계업계는 '워킹그룹(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협의체)' 조성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효율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들은 "도입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한다.

코스닥 기업은 내부회계관리 항목에서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른다.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은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부회계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내부 인프라 한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유희림 기자 wiseforest@

## 태양광·수소 등 기후위험 완화 산업에 투자 한화자산운용 '그린히어로펀드' 출시

### ESG 경험 풍부한 전담팀 운용

'한화그린히어로펀드'는 '기후위험 완화 산업(mitigation)'과 '기후위기 적응 산업(adaptation)'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 기업이거나, 이미 완화 기술을 실제 기업활동에 적용하여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투자한다.

한화자산운용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담 운용역과 리서치 조직을 적극 활용해 성장 단계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운다. 또 아시아 기후변화투자그룹(AIGCC) 멤버인 한화자산운용은 ESG 분석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어 기후위험 완화 투자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글로벌 그린뉴딜 전선이 완성되었고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유럽, 북미, 동아시아 모두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2021년 초 바이든 정부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주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요국인들의 '그린뉴딜 정책' 연이은 발표에 따라 '한화그린히어로펀드'의 긍정적 펀드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기후위험 완화는 단순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산업 자본도 이동 중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석탄, 천연가스 및 원자력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밸류운용팀 책임 운용역은 "이제 기후위험은 곧 투자위험이며, 포트폴리오에서 기후위험을 헤지하기 위해서는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ESG 트렌드를 통한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한화그린히어로펀드는 장기 이익 극대화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화그린히어로펀드'는 한화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전국 지점과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손영지 기자 eoml@

## '잔칫집' 삼성그룹주... 초대받지 못한 삼성SDS

###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지배구조상 중요도 낮아 주가 '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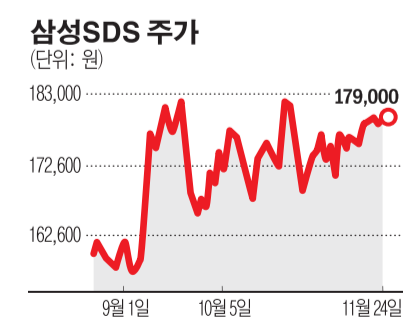
삼성SDS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소외됐다는 평가에 주가도 힘빠진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0.30% 상승하며, 6만7700원으로 마감하며 삼성그룹주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와 지분관계에 있거나 핵심사업 계열사로 꼽히는 삼성SDI가 4.94%와 삼성물산 2.45%, 삼성생명 0.53% 등 상승세로 나타났다. 삼성SDS는 장 내내 전날과 변동없는 17만8500원에 거래되오다, 마감 직전 0.28% 올랐다. 전날 삼성그룹주 중 홀로 하락했던 것을 회복한 데 그친 셈이다.

삼성SDS가 다른 그룹주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사업의 계열사 의존성과 지배

구조상의 낮은 중요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SDS는 시스템통합(SI) 업체로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계주사업역이다. 삼성그룹 전체의 시스템 구축과 관리 업무를 도맡아 수주해 온 덕에 연 매출액은 10조 원을 넘고, 영업이익은 9900억 원의 알짜 계열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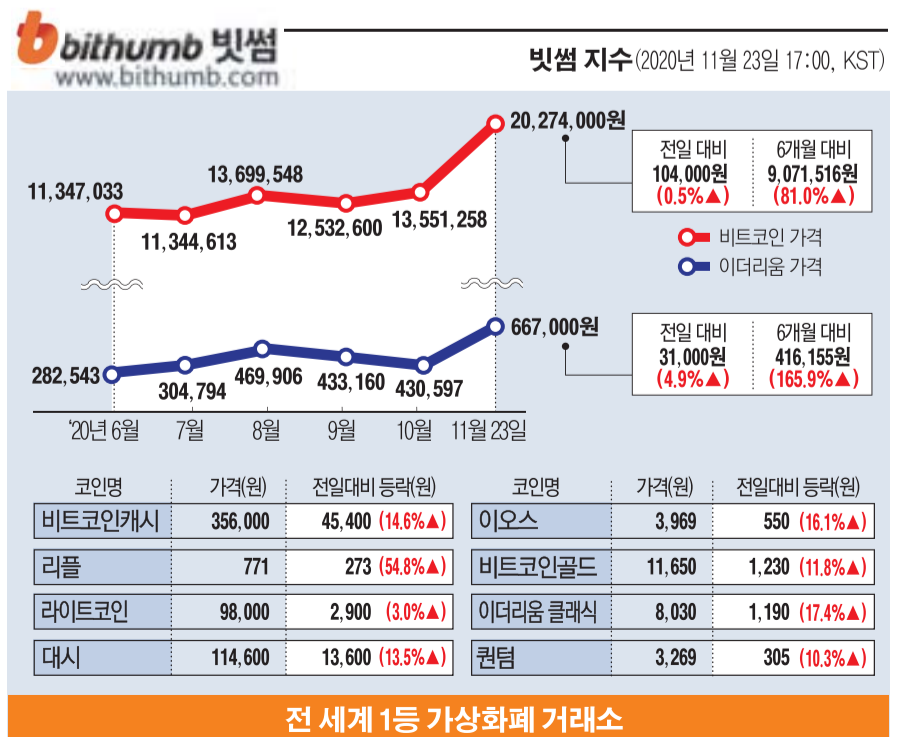
삼성 계열사들의 실적 상승과 함께 삼성SDS의 실적은 매년 상승장구 하고 있지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약점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한 3분기 보고서에서도 삼성SDS는 스스로의 사업에 대해 삼성관계사를 기반으로 안정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회사의 강점 4가지 영역 모두 관계사와 연관성을 강조했다. 삼성그룹 내 매출처가



없다면 사실상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셈이다.

삼성SDS의 지분 구조상 중요도도 떨어진다. 삼성SDS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없더라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지분을 합하면 39.66%에 이른다. 이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LG유플러스가 소외계층 아이들의 1:1 원격수업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스마트 패드와 「U+초등나라」 서비스 지원을 시작합니다

대학생 봉사단의 1:1 멘토링 원격학습과 따뜻한 돌봄의 손길로

**아이들의 꿈 옆에 LG유플러스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U+초등나라」는 초등 교육 인기 콘텐츠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U+ 전용 서비스입니다



EBS 스마트 만점왕



리딩 게이트



아이들 생생도서관



과학놀이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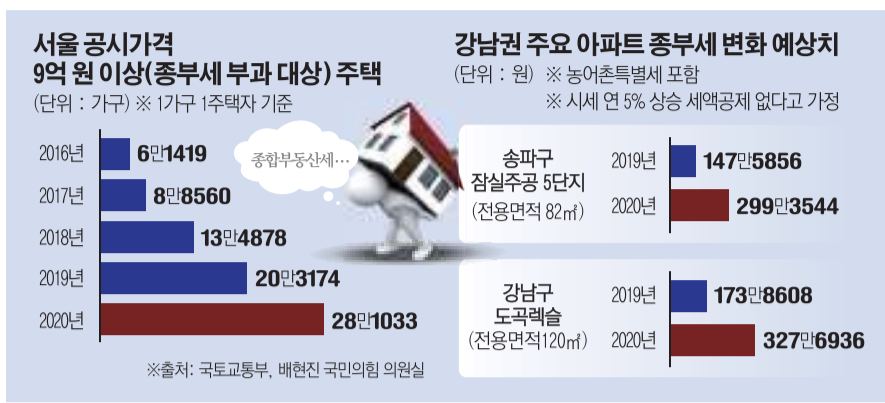
#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작년보다 2배 늘어  
강남 일부선 호가 낮춘 매물 급증  
정부 "매매시장 안정될 것" 기대  
전문가 "내년 중순까지 지켜보아야"

"나라에서 '월세'를 걷는 것과 뭐가 다를까. 은퇴 후 소득도 없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K모 씨.)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현금이 급한 것도 아니고, 일단 보유 후 아들에게 증여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L모 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폭탄을 받아든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보다 2배 안팎으로 오른 세금 부담에 납세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 부담에 매도를 고민하는 보유자들도 있지만 아직은 증여 등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자는 움직임이 많다. 올해 말부터 절세 매물 출회로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내년 중



순까지는 매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형을 보유한 경우 올해 350만 원 가량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이는 작년 종부세 191만 원 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이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 예상액은 713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2배 넘게 오르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형과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을 보유한 2주택자의 세금 인상 폭은 더 가파르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액은 1857만 원이나 내년 4932만원으로 2.7배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에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의 경우 올해 총 2967만 원에서 내년에는 6811만 원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커지자 주택 보유자들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는 종부세 부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자 자유도 없습니까"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 동의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있다.

시장의 반발은 크지만 정부는 세금 부담

에 따른 매물이 출회하면서 서울 집값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그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일부 단지에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를 낮춘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 매물도 많아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물 증가량은 서울 전체 구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가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3367건에서 4292건으로 27.4% 늘었다. 강남구도 3557건에서 4289건으로 20.5% 늘었고 송파구는 전년 대비 20.1% 증가한 2908건을 기록했다. 실제 거래된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형은 지난달 30일 36억6000만 원(13층)에 신고가 거래 후 이달 5일 34억5000만 원(20층)에 계약서를 썼다. 불과 일주일 만에 2억1000만 원이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집값 안정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서초구 대치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집을 갖고 있다가 증여나 매도를 고려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올해 연말보다는 내년 6월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 안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 움직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문선영 기자 moon@·김동호 기자 sorahosi@

## 임대주택 9만 가구에 부영그룹, 임대료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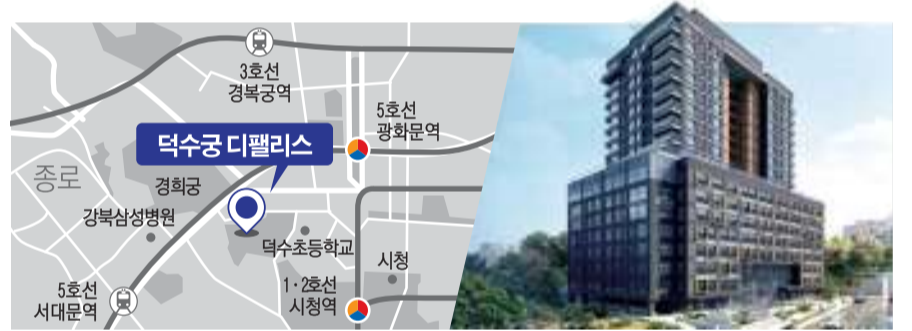
부영그룹이 서민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전국 51개 단지, 3만 7572가구의 임대료를 3년 동안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양극화 등으로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부영그룹은 그룹 소유 임대아파트 130곳 가운데 120곳에서 임대료를 동결 중이다. 동결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 9만 가구에 이른다. 부영그룹은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올린 단지에서도 주거비 급등을 막기 위해 인상률을 1% 안팎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남 등 일부 지역에선 부영 임대주택과 민간 전셋집 간 임대료 상승률 차이가 10% 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7월 말부터 100일 동안 각각 2.53%, 2.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상승률(수도권 1.18%·비수도권 1.82%)을 웃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그룹은 지난 37년간 대기업들이 수익이 나지 않아 꺼리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묵묵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 기자 pbell@



## 20년 '도심홍물'에서 新부촌으로 탈바꿈 덕수궁 디펠리스의 '집생역전'

사람에게 인생역전이 있다면 집에도 '집생역전'이 있다. 도심 홍물에서 신(新)부촌으로 거듭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덕수궁 디펠리스' 얘기다.

올해 7월 공사를 마친 덕수궁 디펠리스는 최근 소유권 이전 작업과 입주 작업이 한창이다. 주상복합건물인 덕수궁 디펠리스는 저층부(2~8층)는 오피스텔(170실)로, 고층부(9~18층)는 아파트 58가구로 꾸며졌다.

오피스텔 170실·아파트 58가구 '주상복합' 흥영철·이우영·원종규 등 정계계 인사 입주  
홍콩계 투자사 2016년 매입 '명품주거' 표방  
분양가 높지만 '도심 노른자 땅' 입지로 줄문의

입주자 면면도 화려하다. 흥영철 고려제강 회장과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 윤치원 전(前) UBS 아시아태평양 회장, 김중환 전 다우기술 부회장 등이 덕수궁 디펠리스에서 이웃이 됐다. 원종규 코리안리 회장 모자는 덕수궁 디펠리스 고층부 아래윗집에 살고 있다.

덕수궁 디펠리스 전용면적 158㎡형을 34억5000만 원에 분양받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 아파트에서 22억 원에 전용 148㎡형 전셋집도 얻었다. 업계 관계자는 "전분주택 개관 당시 정 이사장 딸이 오면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4년 전만 해도 덕수궁 디펠리스가 고급

아파트로 거듭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덕수궁 디펠리스는 1993년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2002년 분양을 재시도했지만 이듬해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다시 유명무실 신세가 됐다.

변화가 생긴 건 2016년 홍콩계 투자회사인 '퀀스타리미티드'가 건물을 매입하면서다. 공사를 재개한 퀀스타리미티드는 입주

규모를 줄이는 대신 '명품 주거단지'를 표방했다. 설계와 자재 등을 고급화하고 와인 저장고, 스파 등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했다.

대신 분양가는 3.3㎡당 5000만 원까지 높였지만 정·재계 고위인사들 간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여

기에는 광화문 도심에 인접한 데다 이름값대로 덕수궁 조광권까지 누릴 수 있는 노른자 땅 위에 있다는 입지상 장점도 큰 역할을 했다.

매매·전세시장에서도 덕수궁 디펠리스는 고급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인근 부동산에서 덕수궁 디펠리스 매물은 팬트하우스(전용 234㎡)가 75억 원에 나와 있고 전용 140~150㎡형 아파트도 30억~40억 원을 호가한다. 3.3㎡당 5000만 원 이상이다. 전세도 18억 원 밑으로는 볼건을 찾을 수 없다.

박종화 기자 pbell@

##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 STORY  
Feel환경 시대 必환경 생활

- PART1. 숫자로 읽는 기후 위기 지구가 보내는 SOS
- PART2. 알뜰달걀 환경용어카드로 보는 환경 이슈
- PART3. 친환경 모담노트 재대로 해야 제대로 지구를 살린다
- PART4. 생활용 아이디어 인사이클로 업그레이드, 일상의 미학
- PART5. 건강한 한 끼 100원짜리 건강을 위한 일
- PART6. 차세대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을 읽면 경제가 보인다



### 신라보가 만난 사람



다산형 뉴딜 일자리 창출로 미래 양천구를 꿈꾼다  
모스트 코로나 시대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취임



"저희 7억 인구 중 3천만 명의 유일한 취미가 있습니다"  
박사를 만드는 게 취미인 남자, 조동성 이사장의 프리토타입



나조차도 감동 못할 기사, 그누가 감동해주라?  
이진우 작사가



### 더불어 숲 어디서든 휘둘리지 않으면 거기 도솔천

김해영의 느린 여행  
'고한 18번가의 가격'  
강원도 정선 고한읍에서  
인척이 가장 통했다는  
고한8리 골목에 들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겹겹  
골목의 변화는 놀라웠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이  
호텔이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집 앞 화단을 단정한다.  
마을은 나날이 예뻐진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 기대된다.

### 엄마가 엄마에게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좋은  
동무른생선 레시피

### 명사·명작 알아보기

읽을 없는 거리의 화가,  
백크시  
"15의 원파리 그림이  
질려나간 시연"

### 고수 열친 '사건의 시작'은 귀농 반대투쟁이었지만

시골에서 단체이나 편선을 운영하는 이가  
없지만 순항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름 모르지  
않았던 이정형 회장님도 임원선 대표 역시  
심오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가이이 편선을  
짓겠다고 기세를 몰았던 남편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그후엔 심의와 병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영, 이게 뭐였? 편선  
사업이 빅손조를 돌아가는 게 아닌가.



###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이웃부터 환경까지, 우리를 잇는 한담  
자주리 천도 출출하게 이으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원단으로 재탄생한다. 그렇게 한 뼘 한 뼘 바느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바래진  
물건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사랑한뼘'  
커뮤니티다.





# 장모 기소·직무 배제까지... 윤석열 '사퇴 기로'

### 尹, 장모사전 개입 의혹 벗었지만 부인 기획사 협찬금 등 '도마 위'

추미에 법무부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검찰이 검찰총장의 가족을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사면 초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가족 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중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 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의 신속 수사 지시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최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윤 총장은 난처한 상황이 됐다.

◇윤석열, 스낵집 늘리자 장모 기소=최 씨의 기소 사실이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점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검사들을 격려하면서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이른바 '갑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에는 없던 행사 개최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검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연일 일선 검사들을 만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김건희 씨 기획사 협찬금 의혹 남아=윤 총장은 최 씨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치명상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최 씨가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입건되지 않은 것이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고발사건(직권남용관리방해 혐의)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윤 총장과 관련해 남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수사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세무당국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해남에서 본 한라산. 쾌청한 날씨를 보인 24일 전남 해남군 현산면 조산리 양도암(해발고도 400m)에서 거리가 100km가량 떨어진 제주도 한라산이 손에 잡힐 듯하다. 양도암에서 촬영한 제주 한라산의 아름다운 풍경. 연합뉴스

##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재판에

###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 열람

경쟁사 직원 아이디어를 도용해 해당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은 박현종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회가량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박 회장과 함께 고소된 BHC 관계자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BBQ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BBQ 해외사업부 문 부사장이었던 박현종 회장은 매각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두 회사는 본사 이후 수차례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BQ 항고로 재수사한 뒤에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증여세·헌금 등 탈세 국세청, 신천지 고발

### 이만희 총회장 10억 세금 추정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과 전국 주요 신천지 교회가 올해 4월부터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십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세청은 세금 추징과 동시에 이 총회장을 증여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4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5개월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비롯한 교회 30여 개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서울국세청은 이 총회장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등 약 10억 원에 가까운 세금 추징과 동시에 세금을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를 비롯한 신천지 산하 교회들에 대해서도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수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은 신천지가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수단법인이 아닌데도 전국의 신도들에게 교회 성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대연 측은 또 신천지 총회 본부에 보고되는 헌금은 2018년 3480억 원, 지난해에는 384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세금 포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신천지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조사 결과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국세청에서 면밀히 들여다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2심도 집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올해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 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비아프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장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매력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매뉴얼과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매뉴얼 말고 실질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전 매뉴얼이자, 혹독한 성장일기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예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발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맘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리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이나현 지음 / 208쪽 / 국판변형 / 값14,800원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철거공사 계획 통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철거공사 계획을 통지합니다.

-아 래-

- 철거공사 기간**  
- 2020년 12월 14일(월) ~ 철거공사 완료시 까지(이주완료 상황에 따라 변동)
- 철거대상**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기존 지상/지하 모든 시설  
- 철거규모 : 총 467동 / 연면적 : 99,805m<sup>2</sup> (빌라 140동, 상가 58동, 주택 253동, 아파트 2동, 무허가건축물 14동)
- 관련업체**  
- 철거공사 : ㈜옥당산업  
- 석면조사 : 환경건설링(주)  
- 석면감리 : ㈜디와이환경연구소
- 기타**  
- 철거공사는 이주가 완료된 구역부터 착수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철거공사 기간은 인허가 일정 및 이주완료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철거감리는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기관에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허가기관 : 만안구청) 또한, 철거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시험철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20. 11. 25.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대림산업컨소시엄**

# 유병자도 간편하게 건강관리 든든하게

보험은 건강과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생존보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 인생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 이후 커졌다.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

을 앞세운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암·고혈압·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며 유병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운전자의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도 출시됐다.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보험 가입이 필요한 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추천하는 보험상품들을 살펴봤다.



## 수술·단기 입원 이력 있어도 가입 가능

### 삼성생명

#### S간편 종합보장보험

삼성생명은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며 '8대 중증질환 외 수술·단기입원' 이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S간편 종합보장보험'을 판매 중이다.

기존 간편보험은 모든 수술 및 단기 입원시 고객이 별도로 보험사에 고지해야 했으나,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최근 2년 이내 수술 및 5일 이하의 입원 이력이 있어도 고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최근 5년내 8대 중증질환으로 진단·수술·입원 했거나 2년내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상 투약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전 기본 고지항목 또한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9가지에서 3가지로 크게 줄어, 3가지 항목만 문제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치료받은 부위나 질병이 보장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S간편종합보장보험은 주보험에서 재해 사망을 보장하며 특약을 통해 주요 질병사망 원인인 암·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 등을 보장한다. 또 고령층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수술은 물론, 간편보험에서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중증도 이상의 폐렴진단까지 보장한다.



'S간편종합보장보험'은 기존 간편보험의 뇌혈관·심혈관 최대 보장금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암진단 최대 보장금액도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가입연령은 주보험 기준 만 30세부터 최대 8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15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최대 100세까지이다. 질병사망보장 특약의 경우에는 최대 85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S간편종합보장보험'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간단한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가입하도록 문턱을 낮추었음 뿐만 아니라, 기존 유병자 보험보다 약 20% 이상 낮은 가격으로 3대 질병을 보장받도록 개발됐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폭넓게 보장

### 한화생명

#### 한화생명 New스페셜암보험

한화생명은 암 예방부터 진단,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보장해주는 '완성형 암보험' '한화생명 New스페셜암보험'을 지난 9일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암 진단은 물론, 암 발병 전후의 예방과 치료까지 보장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진 점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흔히 양성신생물[1]이나 용종(폴립)에서 시작된다. 특히 갑상선암의 이전 단계로 보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최대 8배에 이르는 만큼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한화생명 New스페셜암보험'은 이러한 암 전조질환들이 실제 암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암 예방 특약 2종을 신설했다. '12대기관양성신생물(3대기관 폴립 포함) 수술특약'과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 보장특약' 등 신설된 암 예방 특약은 암 전조질환에 대한 수술비와 치료비를 보장해준다.

기존 암진단 부분에 대해서도 상품성을 강화했다. 종전 스페셜암보험에 없던 비갱신형을 신설,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은 갱신행 대신 비갱신행을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호흡기(폐, 후두), 간, 췌장, 위, 식도 등 각 신체 부위별로 암투약을 마련해 고객이 원하는 암을 추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을 넓혔다. 여기에 감액기간 없이 90일의 면책기간 후 바로 암 진단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또 암치료 관련 보장도 강화했다. 새롭게 신설된 표적항암물허가치료특약에 가입하면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시 최대 5000만 원(최초 1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특약의 보장금액도 종전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한화생명 성운호 상품개발팀장은 "암보험으로 진단 지급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린 만큼 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사망 100세 보장

### 교보생명

#### (무)교보내맘속건강보험

교보생명이 이달 출시한 '(무)교보내맘속건강보험'은 부담 없는 보험료로 다양한 질병 보장을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신개념 건강보험이다.

이 상품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질병 보장을 강화한 건강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사망은 물론 3대질환, 생활습관병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여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생존보장에 관심 있는 고객을 위해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계약을 통해 재해사망을 100세까지 보장한다.

80종에 이르는 특약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고객의 나이, 라이프스타일, 경제상황에 맞게 각종 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해 특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암, 중증질환, 경도·중등도치매, 표적항암물허가치료, 항암방사선약물치료, 인공관절치환수술, 갑스치로, 당뇨, 대상포진·통풍, 각종 입원·수술 등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생활습관병 특약에 가입하면 폐렴, 충수염, 고혈압, 당뇨병,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동맥경화증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최대 100세까지다. 가입 고객에게는 주요 질병별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건강상담, 병원 안내와 진료 예약, 3대질환 치료 등을 지원하는 '교보헬스케어서비스 Basic'이 20년간 제공된다.

교보생명 이창무 상품개발2팀장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합리적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질병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했던 고객들도 부담 없이 원하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사망보험금+주계약 보험료 전액 지급

### NH농협생명

#### 간편한투플러스NH종신보험(무)

NH농협생명은 지난 9일 사망시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간편한투플러스NH종신보험(무)'를 새롭게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기존에 납부한 주계약 보험료 전부를 돌려주는 종신보험으로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가 있거나, 암치료 이력으로 가입할 수 없던 유병력자도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와 2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암진단 등의 3가지 고지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가입 가능하다.

보장 유형은 일반형과 실속형 두 가지다.

일반형은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보험가입금액 전부와 기존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모두를 보장한다. 실속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 사망하면 보험가입금액의 50%와 함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돌려준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사망시 보험가입금액과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전부를 지급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6종의 선택특약이 있어 건강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암진단 △소액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과 수술 및 입원특약



관련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30세부터 남성은 최대 65세, 여성은 67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금액 5000만 원, 20년납, 월납,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1형(실속형), 40세 기준 남성 28만7500원, 여성 23만7000원이다.

홍재는 대표이사는 "이번 상품은 종신보험의 고유한 기능에 유병자도 간편하게 고지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 풍수재로 인한 사업장 휴업까지 보상

### 삼성화재

#### '비즈니스안전파트너'

삼성화재는 재물보험 신상품 '비즈니스안전파트너'를 출시했다.

이 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 보장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고객이 기존에 어렵게 느꼈던 재물보험을 이해하기 쉽고, 사고 시에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변 업종이 바뀌어도 매년 계약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상 사업장 주변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 경우 주변 업종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품은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을 운영한다. 가입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고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2배 이상 한도를 확대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도 추가됐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트랩펄린, 에어바운스 관련 사고

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의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넓혔다.

이 상품에는 업계 최초로 풍수재로 인한 휴업까지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됐다. 이 특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붕괴·침강사태, 구내폭발·파열로 인해 점포를 휴업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전동킥보드·전동휠 상해 보장 추가

### 현대해상

####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

현대해상은 운전자보험의 가장 기본 담보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치료보장을 강화한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을 판매 중이다.

해당 보험은 업계 최초로 진단 주수 별로 보장을 차등화한 자동차사고상해진단 특약을 신설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 정도가 심해 진단 받은 주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함께 탑승한 가족의 상해를 보장하는 가족동승 자동차사고 담보의 인원도 최대7명까지로 확대했다.

중과실사고 피해보장, 골절재활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담보도 신설해 상해치료보장을 더욱 강화했다.

'내생애첫자동차보험 가입자 우대제도'를 신설해 해당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생애 첫 자동차보험을 현대해상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보상도 추가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1인용 이동수단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92%나 늘었다. 뉴하



이카운전자상해보험은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자의 운전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특화 담보 6종도 신설했다.

이 상품은 만18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3/5/7/10/15/20년만기 또는 70/80/90세만기형 중 고객들의 필요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윤경원 장기상품1파트장은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은 운전자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 영역을 강화한 상품으로, 이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더 많은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 휴일에도 가입... 약관도 스마트폰으로

### KB손해보험

####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

KB손해보험은 24시간, 365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 상담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을 오픈했다.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강조됨에 따라 고객과 설계사간 대면을 최소화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설계사가 고객과 대면한 후 고객의 상황 및 니즈에 맞는 가입설계를 위해 사무실 복귀해 서류를 작성하고 고객과 다시 대면해야 했다. 고객의 추가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을 통해 고객과 대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의 상황 및 요청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보장 설계, 계약전 알릴의무 입력, 인수심사 요청 및 계약 체결까지 한번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휴일 및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얼마든지 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은 물론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대면 횟수를 대폭 감소시켜 고객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체결 시 전달하는 약관이나 보험증권도 스마트폰으로 교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편의성을 높였다.

환경보호를 위한 종이사용 절감(Paperless)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B손해보험은 "스마트폰 보험가입 시스템은 영업현장의 기동성을 강조한 '하루의 마무리'는 고객 사무실 앞에서"라는 KB손해보험 고객 중심 경영정책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고객의 니즈와 안전까지 생각한 이 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신 기자 jinsan@

## 할머니가 손주 보험 들어주면 할인

### NH농협손해보험

####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 등 다양한 위험을 100세까지 보장하는 '무배당 NH가성비굿플러스어린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백혈병, 뇌종양, 악성림프종 등 발생빈도가 높은 소아암과 세균성수막염, 소아심장질환 등 고액의 치료비를 필요로 하는 질병부터,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교합, ADHD, 성조숙증, 중증 아토피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또 중증화상, 교통사고 등 중대한 사고와 골절, 화상, 갑상, 대상포진까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해 준다.

1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경우 80세, 90세, 100세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20년, 25년, 30년 납입으로 납입기간 내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최대 30% 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다.

2종 표준형으로 가입한 경우 20세, 30세만기도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어린이 특화담보를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담보에 대해 가입 첫날부터 보장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전 담보에 대해 비갱신형으로 구성하여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박찬신 기자 jinsan@



자녀가 후유장애 80%이상 발생, 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가 추가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할인,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보험을 계약할 경우 보험료의 1%를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정에서 가입할 때도 최대 2%의 할인혜택을 제공해 최대 4% 할인이 가능하다.

태아부터 30세까지 가입가능하며, 1종 80세, 90세, 100세만기, 20년/25년/30년납입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2종은 20세, 30세, 80세, 90세, 100세만기, 10년/15년/20년/30년납입으로 선택할 수 있다. 박찬신 기자 jinsan@

## 유병자 고지의무 간소화 가입문턱 낮춰

### 메리츠화재

####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

메리츠화재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병력자와 고령자들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3대질병보험'은 기존 간편심사보험의 3가지 알릴 의무사항을 대폭 간소화했다.

이 상품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3대질병 중 고객 선택 담보에 따라 알릴의무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암만 가입 시에는 5년내 암 진단·입원·수술만 알리면 된다.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만 가입 시에는 5년내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의 진단·입원·수술만 포함된다. 암과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모두 가입 시에는 5년내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진단·입원·수술을 알려야 한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5/10/15/20/30년만기 자동갱신형 운영으로 100세까지 보장된다.

메리츠화재는 치매 경증부터 중증까지 폭넓게 보장하면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치매 전용상품인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를 위해



고지의무를 단 2개의 질문으로 간소화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가능장애 진찰과 추가 검사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관련 질병으로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다.

상품의 보험 기간은 85세와 90세, 95세, 100세 만기다. 납입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무해지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가능하며 치매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 신경내과, 상해응급실내원비 등 상해 관련된 보장까지 강화됐다. 박은평 기자 pepe@

#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 Together.

고맙습니다. 희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한 하보리 떡방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으로 같이가게'는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캠페인을 계기로 난생처음 시작해본 온라인 판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감사함과 더불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매출 덕분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셨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온라인 판매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소상공인과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 참여자 이정인 드림

## '희망으로 같이가게'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용산떡방앗간, 케이푸드바이오, 오!은하수공방, 부각마을, 제이에로스, 119레오, 동동, 도산도방, 지평도예, 허브앤조이, 기운찬, 덕포식육점, 감자이모, 한터식품, 한방곰뱅이한글, 하워짓커피랩, 하보리떡방, 제이엠그린, 아리아리떡사랑, 세미락, 모양맛김, 간식여왕, 강화까까, 고후나비, 굴다리식품, 한우돌곰창, 한가람, 시장기름집, 유화컴퍼니, 메밀꽃이일다, 모이앤피, 버드윙리엄, 어반파머, 와이에이치디랩, 청년바른식, HIT, 진한지flower, 초아틱, 프롬유, 라마당, 청산제과, 자연데코, 오르리어, 디모먼트, 대광수산맛김, 금메달, 해마루팜, 토미153, 달콤공장, 투테일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입점 가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 1강\_ 온라인 진출 사전 준비편
- 2강\_ 상품선정 및 촬영 편
- 3강\_ 운영 및 관리 편

\* 신한금융그룹 유튜브 또는 좌측의 QR코드를 통해 가이드 영상을 만나보세요

# “반도체 공정 난제 해결...산업용 AI분야 1등 목표”

### SK가 전액 투자 AI기업...김영한 가우스랩스 대표

#### 8월 美 실리콘밸리에 본사 설립, 9월 한국사무소도 문 열어 '정밀 제조의 꽃' 반도체...문제 해결 댄 조 단위 임팩트 창출

“가우스랩스의 최종 목표는 산업 AI(인공지능) 분야에서 1등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성장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IPO(기업공개) 기회를 잡고, 다양한 산업에서 AI 적용을 선도하는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K그룹이 야심 차게 설립한 산업용 AI 전문회사 가우스랩스(대표 김영한·사진)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회사는 AI 전문기업을 표방한 SK의 첫 독립 법인으로 8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설립한 데 이어 9월 한국 사무소도 설립했다. 자본금은 5500만 달러 규모로 2022년까지 SK하이닉스가 전액 투자할 계획이다.

가우스랩스의 첫 도전 과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공정의 난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다.

김영한 가우스랩스 대표는 최근 SK하이닉스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AI가 반도체 산업에 가져다줄 효율성과 현재 SK하이닉스가 마주하고 있는 경쟁환경에서 AI는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부문 인수, 용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SK그룹의 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는 계속 확장되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우스랩스의 첫 사업은 반도체 제조 현장의 혁신으로 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맞닥뜨린 기술 난제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미세화 기술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효율성 극대화를 위



해 자연스럽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대표는 “반도체는 ‘정밀 제조의 꽃’이라 불린다. D램이나 낸드를 제조할 때 600~700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며 90일이

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만큼 제조 현장에는 난제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해 나가면 다른 제조 분야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우스랩스는 AI를 통한 반도체 제조 혁신을 목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솔루션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현장의 주요 문제를 찾기 위해 가우스랩스는 4월부터 SK하이닉스 제조·기술 산하 AI-DT 솔루션 개발팀, 데이터 아키텍처팀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우스랩스는 올해까지 20명 수준의 글로벌 AI 전문가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2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제조 현장에는 어렵지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펼쳐져 있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 단위(Billion Dollar Scale)의 엄청난 경제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적인 요소”라며 “가우스랩스와 함께 하면 AI 전문가로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머스크, 게이츠도 제쳤다 테슬라 주가 급등...세계 2위 부자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사진)가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를 제치고 세계 2위 부자에 올라섰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CEO의 자산이 테슬라 주가 급등에 힘입어 불어났다. 이날에만 72억 달러(약 8조64억 원) 증가해 1279억 달러를 기록, 게이츠의 1277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년간 세계 부자 1위 자리를 지키던 게이츠는 2017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2위에 머물러 왔다.

머스크 CEO가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2위 부자에 등극한 일등공신은 테슬라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몰고 온 기술주 밸리를 타고 날아올랐다. 주식 분할 이후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미국 증시 주요 지수 중 하나인 S&P500에 편입되면서 또다시 상승 탄력을 받았다.

이에 테슬라 시가총액은 50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자산의 4분의 3이 테슬라 주식인 머스크 CEO 자산도 올해 들어서만 1003억 달러 급증했다. 부자 순위도 1월 세계 부자 500위 순위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백만장자 지수 35위에서 2위로 경종 뛰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반도건설, 창원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선물' 캠페인 동참



반도건설은 창원시 주거취약 계층에 노후주택 보수공사를 지원하는 '사랑의 집 선물'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랑의 집 선물' 캠페인은 창원시에서 건설업체 및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반도건설 창원 현장 임직원들은 지난주 주말(21일)을 이용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거주 중인 김모 씨와 박모 씨의 집을 방문하여 문과 창호, 싱크대 등을 교체하고 지붕과 벽을 보수해 누수를 차단하는 등 오래되고 낡은 집의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 씨의 집은 지은 지 40년이 넘는 10여 평의 좁은 주택으로, 현재 3인 가구가 살고 있다. 조순세대 위탁가정인 박모 씨는 15년 전 집을 수리한 후 지금까지 손본 적이 없어 벽에 금이 가고 천정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모두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였다. 문성영 기자 moon@

###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엔 원가로 공급” 40만원 수준 전망...美 릴리·리제네론의 10분의 1

서정진(사진) 셀트리온 회장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미국의 릴리나 리제네론이 허가를 받으면서 한 사람 치료하는 데 400만~450만 원 정도에 판매한 것 같다”며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치료제는) 우리나라에는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가격은 40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4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에서만 그렇게 팔 것이고, 해외에서

는 다른 경쟁사 가격보다는 싸지만 (한국보다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치료제 개발은) 정상적으로 하면 1상 끝내고 2상 끝내고 3상 끝내서 하는 게 정상”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 심각하니까 2상 데이터를 보고도 우선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이 전 세계의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상 결과가 좋으면 12월 말, 1월 초쯤 조건부 승인 신청에 들어갈 것이다. 판단은 우리나라의



식약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치료제 개발 상황에 대해선 “미국에서는 릴리와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이미 이번 달에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도 빠르면 이제 한 연말 연초에는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셀트리온이 전 세계 치료제 생산 시설의 7%를 가지고 있다”며 “제품의 재고 레벨을 최대한으로 해서 생산하면 200만 명분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미 10만 명분을 만들어 놓고 있고 우리나라용으로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 LG전자, 3년간 에티오피아서 콜레라 백신 접종 후원 국제백신연구소와 협약 체결...임원사회공헌기금 등 활용

LG전자가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IVI)와 함께 에티오피아에서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해 2021년부터 3년간 백신 무료접종과 질병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LG전자는 24일 IVI, IVI 한국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전자와 IVI는 콜레라 취약 지역의 주민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현지 공중보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감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IVI는 1997년 UN개발계획(UNDP)이

주도해 설립한 비영리 국제기구다. 개발도상국과 세계보건을 위해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본부를 뒀다.

앞서 LG전자는 2008년부터 IVI를 후원하며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백신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2010년부터 5년간 에티오피아에서 백신 접종과 수인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 바 있다.

LG전자는 이번 사업에 임원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2004년부터 매



왼쪽부터 제물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박상철 IVI한국후원회장.

년 임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임원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 기금은 국내 외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 지역사회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기시판

### ‘나눔과꿈’ 사업 40개 비영리단체 발표

사랑의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공모사업인 ‘2021년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된 40개 비영리단체를 발표했다. ‘나눔과꿈’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사랑의열매와 삼성전자가 함께하는 공모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40여 개 단체를 포함해 지난 5년간 247개의 비영리단체에 총 450억 원이 지원됐다.

### 호반건설, 업계 첫 ‘RCSV 10억 클럽’

호반건설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서 ‘RCSV 10억 클럽’ 가입 인증패를 받았다. RCSV는 대한적십자사가 법인 기부자를 위해 마련한 사회적 가치 인증 프로그램으로, 기업들은 1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구간별로 참여할 수 있다. RCSV에서 10억 원 이상 기부한 건설사는 호반건설이 처음이다. 호반건설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2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2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 인사

◆환경부 ◇국장급 전보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최종원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청소년정책관 최성유 △대통령비서실 심민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무이사 고재영

◆LS그룹 ·LS ◇상무 승진 △허영길 홍보담당 ◇신규이사 선임 △강동준 재경담당 ·LS전선 ◇전무 승진 △최창희 미주지역본부장 ◇상무 승진 △김정년 에너지시스템연구소장 ◇신규 이사 선임 △김원배 해저생산본부장 △이상돈 유럽지역본부장 △차금환 기반기술연구소 연구위

원 △남기준 기반기술연구소 연구위원 △정창원 LSHQ 법인장 △김낙영 시공부문장 전문위원 △양훈철 배전연구소장 연구위원 ·LS일렉트릭 ◇전무 승진 △김영근 전력CIC 연구개발본부장 CTO ◇상무 승진 △김정옥 전력CIC 생산본부장 ◇신규이사 선임 △어영국 전력CIC 글로벌사업본부 중국사업부장 △서장철 전력CIC 연구개발본부 디지털솔루션연구소장 ◇외부영입 △이충희 상무 전력CIC 글로벌시스템사업부장 ·LS니코동제련 ◇전무 승진 △이동수 영업부문장 ◇상무 승진 △홍형기 구매물류부문장 ·가온전선 ◇상무 승진 △박영목 전력사업본부장 ◇신규이사 선임 △이상호 통신생산본부장 ·E1 △한상훈 경영기획본부장 CFO ·에스코홀딩

스 ◇신규이사 선임 △이정철 인사홍보부문장 CHO ·에스코 ◇상무 승진 ◇김환 경영지원부문장 CHO ◇이동 ◇방혁준 고객서비스부문장 ·LS메탈 ◇전무 승진 △문명주 경영지원부문장 CFO ◇신규이사 선임 △장재완 STS사업부장 ·GRM ◇전무 승진 △백진수 CEO ·토리컴 ◇상무 승진 △이원준 CEO ·LS오토모티브 ◇부사장 승진 △문해규 제조사업본부장 ◇전무 승진 △서형석 인사노경부문장 CHO ◇상무 승진 △이효철 유통개발센터장 △David Ha 북미법인장 △지영도 무역법인장 ◇외부 영입 △현상영 상무 HKMC영업부문장 △이용욱 상무 SW개발센터장

◆알테오젠 △글로벌 신약 연구 책임 조

의정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박일근 △논설위원 송용창 ◇신문국 △신문에디터 겸 논설위원 김정곤 △신문에디터 겸 논설위원 양정대 △편집위원 이지 △종합편집부장 김영환 △편집1부장 강성래 △편집2부장 김소연 ◇뉴스룸국 △뉴스부부장 김영화 △디지털기획부부장 양홍주 △경제산업부장 김용식 △사회부장 강철원 △정책사회부장 조태성 △문화스포트부장 이성원 △국제부장 박석원 △어젠다기획부장 이진희 △정책금융팀장 민재용 △산업1팀장 허재경 △산업2팀장 김창훈 △전국팀장 정민승 △스포츠팀장 성환희 △커넥트팀장 김혜영 △인스플로러랩장 김지은 △애니로그래퍼 고은경

## 부음

▲이홍래 씨 별세, 이수영(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 팀장)·용택·수정·수진 씨 부친상, 박준홍·이규태 씨 장인상, 강정미 씨 시부상 = 23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8호실, 발인 26일 05시 30분, 장지 국립과선호국원, 02-2225-1004

▲오옥순 씨 별세, 김현충·현욱(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담당)·현주 씨 모친상, 신수봉(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 씨 장모상 = 23일,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특1호,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032-860-7010

▲윤선하 씨 별세, 윤명희(전남도의원) 씨 부친상 = 24일, 전남 해남 산림조합장례식장, 발인 26일 오전, 061-532-4444

위정현의 게임으로 보는 세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게임학회 회장

중국 게임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우려한다

2년 전 중국의 대형 게임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원칙적으로 예산의 제약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같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100여 개 있다고 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원신'이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미국 매출 1위를 차지했다. 개발자 사이에서는 한국은 이런 게임을 만들지 못할 것 같다는 위기감도 감돈다. 그럼에도 국내 게임사들은 지식재산(IP) 우려먹기와 확률형 아이템 과금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원신의 영문명은 'Genshin'이다. 개발사는 미호요다. 오늘 미국의 지인과 통화하다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 애니메이션풍을 좋아하는 미국 게이머 중에 원신이 일본 게임이고, 미호요가 일본 개발사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젠신'은 원신의 일본어 발음이다. 중국 개발사가 철저하게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게임 이름조차 일본 게임으로 '위장'하고 있다. 게임 캐릭터나 그래픽 디자인도 철저하게 일본풍이다. 그런데 이런 위장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게임의 전장인 미국에서 먹히고 있다. 물론 원신은 닌텐도의 '젤다의 전설'을 카피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제는 잘 배웠다는 점이다. 원신을 보면 중국 게임이라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중국의 촌스러운 붉은색 계통의 그래픽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원신을 개발한 중국 개발자는 과거의 중국 1세대나 2세대 개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의 개발자로 보인다. 그들은 청소년 시절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미국 게임을 접하는 데 있어 한국과 동등한 정보량과 시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게임 개발자들이 청소년 시절에 접했던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젤다의 전설'도 이미 청소년 시절에 플레이하고 학습한 콘텐츠일 수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일본 IP에 청소년 시절부터 익숙한 것이다. 예전에 중국 개발자들이 게임회사에 들어와 해외 콘텐츠를 배우면서 개발했다면 이제는 이미 청소년기에 자연스럽게 일본의 IP, 서브컬처를 흡수한 상태에서 개발에 임한다는 의미다. 이제 중국 개발자도 한국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창의적'이다. 또한 중국 개발자들은 다른 게임을 배우

는데 있어 부끄러움이나 주저함이 없다. 그들은 후발주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20년간 한국 게임을 경험하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게임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면 우리는 온라인 게임의 유산 속에 최고의 개발자라는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일본 콘솔을 배우고 흡수하고, 필요하면 중국 게임에서도 배우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중국 게임사의 공격적 해외 진출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대규모 자본력과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이다. 게임산업은, 특히 중국 게임산업은 자본력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되었다. 게임 개발과 마케팅, 인수 합병(M&A)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어 승부하는 산업이 된 것이다. 2년 전 중국의 대형 게임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다 원칙적으로 예산의 제약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같은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가 100여 개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개발되는 게임이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 내자 관호 규제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 개발사들의 선택이 바로 해외 시장이다. 풍선효과처럼 중국 내 규제의 압력은 반대로 해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역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원신 이전에 충격을 받은 만한 중국 게임이 여러 개 있었다. '음양사', 'AFK아레나'와 같은 게임이 그것이다. 배틀그라운드와 카피 게임이라 조롱받던 넷이즈의 '황야행동'은 일본시장에서 대성공은 거두었다. 그리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 버전으로 발매되기에 이르렀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황야행동과 원신은 중국 게임의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2006년 필자가 처음 중국 게임의 위협을 경고했을 때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묻고 싶다. "내가 걱정이 많았던 것인가"라고.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서울대 객원교수·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11월, 아버지의 이야기

출근 전 옷매무새를 고치려고 거울 앞에 선다. 오늘 따라 내 얼굴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유난히 어른거린다. 남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종종 이야기했지만 이제까지 내 눈에는 오히려 다른 점이 많이 보였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다. 얼굴만 아니라 체형이며 걸음걸이까지 비슷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닮아간다. 11월은 아버지를 많이 생각나게 한다.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다.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꼭 10년을 더 사시다 가셨다. 힘든 시간이었다. 돌아가시기 전 몇 년은 치매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도 끝까지 나를 알아보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다. 몇 해 전 봄날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아인이 되었다. 오랜만의 휴식이지만 즐길 준비는 완벽하지 않았다. 우선 몸에 약간의 이상 현상들이 있었다. 그동안 긴장감으로 그럭저럭 버텨온 느낌이었지만 쉬게 되니 아픈 곳이 나타났다. 미뤄왔던 얼굴

계통 부분을 조금 손을 봐야 하는 것 같다. 치아 몇 개를 보수하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를 정밀 검사해 보니 고막에 조그마한 구멍이 났다 한다. 고막 이식 수술을 하고 나니 한 달 정도는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어려웠다. 한쪽 귀를 막아 놓으니 꼭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귀를 자른 자화상'에 나온 모습이 연상된다. 남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데다 듣기도 편치 않다. 조용히 내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차라리 잘되었다. 이 무렵 아버지는 거의 식사가 어려워 돌아가실 날만 기다려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해 드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거의 가수면 상태에서 내가 인사를 하면 조금씩 반응할 뿐이다. 돌아가실 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아버지께서 받아 주실 형편이 아니다. 그동안 아버지께 대한 기억들을 모아 글로 정리해 보기로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배운 수채

화도 그려 이야기 속에 넣기로 했다. 한 달 여 작업을 하니 작은 책자가 완성되었다.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 줄 알았는데 정작 그렇지 않다.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내가 철들 무렵부터 순간순간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이다. 그리고 그 사실도 내 관점이지 아버지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당시 생각을 확인할 길도 없다. 쓰고 보니 아버지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었다. 둘째, 어느 정도 글을 쓰다, 이것을 외부인과 공유할 것이냐 잠시 생각했다. 공개한다고 생각하니 글 쓰는 데 부담이 생겼다. 과연 내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쓸 수 있을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면서 옛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이나 지인들이 추모하는 글을 쓰셨던 것이 생각났다. 요즘 그런 관습은 거의 사라졌다.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마치고 묘소에 안치하기에 바쁘다. 그래서 좀 허무하다 싶어 아버지를 기리는 글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글을 쓰면서 아버지에 대해 나의 진솔한 심정을 전해 드

리고 싶어졌다. 자칫 외부인의 시선을 생각하다 보면 미화하기 십상이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나의 심정을 최대한 담아 아버지께만 드리기로 했다. 셋째,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부지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으며 어려운 순간에도 비판적이기보다 낙관적이었다. 나도 그 영향을 받아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며 포기하지 않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얼마 전 시골에 갔더니 40여 년 전 아버지가 심어 놓은 동백나무가 부쩍 자라 이제는 내 키의 두 배를 넘는다. 당시 나무를 심으면서 "이 나무가 충분히 자라면 땅에 잡초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비록 사회적으로 나보다 덜 성취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큰 나무이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씀 덕분에 잡초 걱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회 생활을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 피델 카스트로 명언 "역사가 나를 무죄로 평가할 것이다." 쿠바의 정치가이자 공산혁명 지도자. 쿠바의 최고통치기구인 국가평의회 의장직 등을 47년간 맡았다. 바티스타 정권에 대항한 병영 습격작전이 실패한 후 재판에 회부된 그가 한 자기변론이다. 2년에 걸친 투쟁 끝에 혁명에 성공한 그는 사회개혁을 단행하고 라틴아메리카 해방을 제창했다. 오늘 그는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26-2016.
- ☆ 고사성어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뜻. 백성에게는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고통보다 더 무섭다는 말. 공자(孔子)가 태산(泰山) 기슭을 지날 때,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을 호랑이에게 잃은 여인이 울자 자로(子路)에게 마을을 떠나지 않는 연유를 알아보라 했다. 부인이 "여기 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없지요"라고 하자 공자가 한 말. "잘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苛政猛於虎]'는 것을." 출전 예기(禮記) 단궁편(檀弓篇).
- ☆ 시사상식 / 프리미엄 프리미엄과 프리미엄이 결합된 용어. 소비자들이 가성비보다 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가리킨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다기능성 제품 울인원 에센스, 머리 감는 시간을 줄여주는 드라이 샴푸 등이 좋은 예이다.
- ☆ 고운 우리말 / 적바림 나중에 참고하려고 간단하게 적어두는 글. 메모나 공식적인 기록 모두 적바림이다.
- ☆ 유머 / 아내의 잔소리 피곤해 잠이 든 남편에게 아내가 아침에 깨자마자 잔소리를 퍼부었다. "어떻게 그냥 자요? 젊어서는 그냥 자는 일이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 큰일이네요." 끝없는 잔소리. "전기세 많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왜 불을 안 끄고 자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마리 진투아네트'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빵 대신 브리우슈를 먹으라'는 말은 프랑수아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현실 감각 없음을 조롱하는 말로 여겨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11월 한국에서 다시 소환된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라고 말한 국회 국토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두고 나온 반응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가 물리는 이유에 대해 진단부터 잘못됐음을 지적해 비교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주창했으나 깃발부터 애

면 데 꽃은 상태로 고지 탈환을 외친 셈이다. '기필코 전세를 안정시킬 것'이 아니라 기필코 전락 수정에 직면한 실정이다. 엉당한 공급 대책은 물론, 그 효과를 내기도 전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지적하는 것은 부동산 민심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

지 못한 대목이다. 주거 환경 면에서도 빌라와 아파트를 비교해 더 낫다고 하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많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빌라에 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어떠한 환상에 살고 있는지 되물고 싶다.

조국 전 장관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것에 대응한다'란 뜻의 '불변응만변'(不辦應萬變)을 최근 SNS에 게재했다. 이는 광복 직후 혼란기에 새긴 백범 김구 선생의 휘호다. 때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이슈마저도 이 같은 변하지 않는 신념만으로 대처하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주거 정의(1가구1주택자) 실현을 내세우거나, 부동산 민심을 단순히 투기 수요로 보는 것 등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보다 고정된 인식으로 시장을 잡아 보려 하지만 이른바 '주거 정의'란 1가구1주택자 실현이란 환상에 젖어 있을 뿐이다. '가변응만변'(可辦應萬變)의 태도가 필요한 때다.

기자수첩



이꽃들 정치경제부/flowerslee@

'마리 진투아네트'의 아파트

#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집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유일한 주택 공급처다.

특히 재건축은 주택 공급의 주요 파이 프라인으로 통한다. 한 번에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어서다. 재개발은 일부 구역을 빼곤 대부분 중소 단위인데다 조합원도 상대적으로 많아 주택 공급 효과가 덜한 편이다. 재건축을 하면 통상 기존보다 가구 수가 20~30%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8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방안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도 300~500%까지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서울 도심에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이는 8·4 대책에서 밝힌 추가 주택 공급 물량(13만 2000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런데 정부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70곳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곳은 얼마 안 된다.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사업성 분석)을 신청한 단지는 총 15곳이다. 이 중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라리미주아파트(1089가

## 데스크칼럼

###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구) 등 규모가 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모두 조합원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발을 뺐다. 이로써 사전컨설팅을 받게 되는 단지 규모는 1만3000여 가구에서 3000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최근 기부채납 비율을 최대 7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당근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오히려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들까지 반대 여론 때문에 동요하는 분위기여서 공공재건축에서 발을 빼는 단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공재건축의 흥행 실패는 예견됐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이 두 배가량 늘어나지만, 그만큼 임대주택을 들여야 한다.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싶은 조합이나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양적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용적률 상향으로 '빡빡한 닭장 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합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재건축카드를 꺼내 들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재건축 추동 요인인 개발이익을 없애

면 어느 조합이 공공재건축 사업에 뛰어 들겠는가.

이대로 가면 공공재건축 정책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고,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다.

늦었지만 정부는 재건축 조합의 구미를 당길 획기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재건축을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임대주택 건립 비중도 확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참에 민간 재건축에 대한 정부 시각도 바꿔야 한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불편해하는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재건축 족쇄를 풀면 일시적으로 집값이 뛰고 그 혜택이 '가진 자'(주택 소유주)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는 것은 집값 불안을 미래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재건축보다 민간 재건축 활성화다. 공공부지 확보가 가능한 도시 외곽과 달리 도심에선 민간 영역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급 규제를 완화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확실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지 않고는 집값 안정도, 전세난 해소도 도모할 수 없다. choch21@

## 시설

# 집값 정책 실패로 종부세 폭탄, 조세저항 없겠나

국세청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폭탄'이 현실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구체적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 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었다. 올해는 고지 인원이 73만 명에 이르고, 걷는 세금은 4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8만1033가구로 전년(20만3174가구)보다 38.3% 증가한다는 게 공시가격별 주택현황 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6만1419가구)과 비교할 때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을 기준해 1주택자는 공시가 9억 원,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올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말고도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광진구 등의 아파트가 대거 9억 원 이상이 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재산세 부담까지 더하면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을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이 많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이제 집값이 비싸졌다고 막무가내로 벌금 매기듯 세금 폭탄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종부세는 앞으로 급증하게 돼 있다.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배 가까이 뛰고, 1주택자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90%에서 95%로 높아진다.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 1주택자도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수십년 어렵게 돈 모아 집한 채장만 했는데, 그 집값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올랐다고 세금폭탄을 퍼붓는다. 집 가진 게 무슨 죄라는 건가. 그들이 세금 징벌을 당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다. 특히 별 소득없이 집이 자산의 전부인 은퇴한 고령자들은 비명을 지른다. "세금 아닌 벌금" "겨우 마련한 집 팔아 세금 내라는 말이나" "내 집 살면서 월 몇백만 원의 월세를 정부에 갖다 바치는 꼴"이라는 등의 불만이 비등한 현실이다.

이런 식의 세금 인상과 과도한 부담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세정(稅政)으로 보기 힘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도 될 수 없다. 적어도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1주택자, 내 집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보유세가 더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조남호의 중구난방

IT중소기업부 차장



# 주파수 재할당, 소비자 권익이 최우선

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들어서는 양측의 견해차가 크다면 차라리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공세를 더했다. 또 과기정통부에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강수도 뒀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로 응수했다. 재할당 대가는 물론이거니와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특히 5G(5세대)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차등 부과하는 옵션이 쟁점이 됐다.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는 2022년까지 무선국이 3만 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최대치인 4조4000억 원, 3만~6만 국 4조1000억 원, 6만~9만 국 3조9000억 원, 9만~12만 국 3조7000억 원, 12만~15만 국 3조4000억 원, 15만 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 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2010년과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되 5G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 27% 할인된 가치라 설명했다. 이통3사가 요구한 경매 대가의 50% 수준의 가치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최초 논란이 된 양측의 재할당 대가 격차보다 괴리가 더욱 커졌다.

그나마도 5G 투자를 최대치로 했을 때나 가능한 수치라는 점에 이통3사의 반발이 크다. LTE를 8년간 꾸준히 투자해 구축한 무선국의 숫자가 15만 국이었는데, 5G에서 2년 만에 달성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이통3사가 정부 제시안을 사실상 이중과세 내지 벌금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견 이통3사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도 상당한 상태에서 절대 성사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셈이니 속이 터질 만하다. 반대로 정부로서도 이통3사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 역시 힘들다. 험담에 주파수를 내주게 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배임을 했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적어도 이통업계가 실현 가능한 적절한 기준을 다시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옳다. 이통3사 역시도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한발 물러나 정부와 이견 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주파수 대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spdran@

## 세무, 특! 다주택자 1주택 양도시 장특공제 요건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8·2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8·2 대책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주택자가 됐다.

2018년 9·13 대책으로는 고가의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됐다.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공제하고, 2년 미만 거주 시 최대 30% 공제하도록 강화했다. 강화된 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9억 원 초과)에 대한 장특공제를 최대 80%(10년)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일례로 2주택 이상을 장기로 보유한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외의 주택을 올해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올해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올해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1주택을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이때 장특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한다.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라도 9억 원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장특공제를 최대 48%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윤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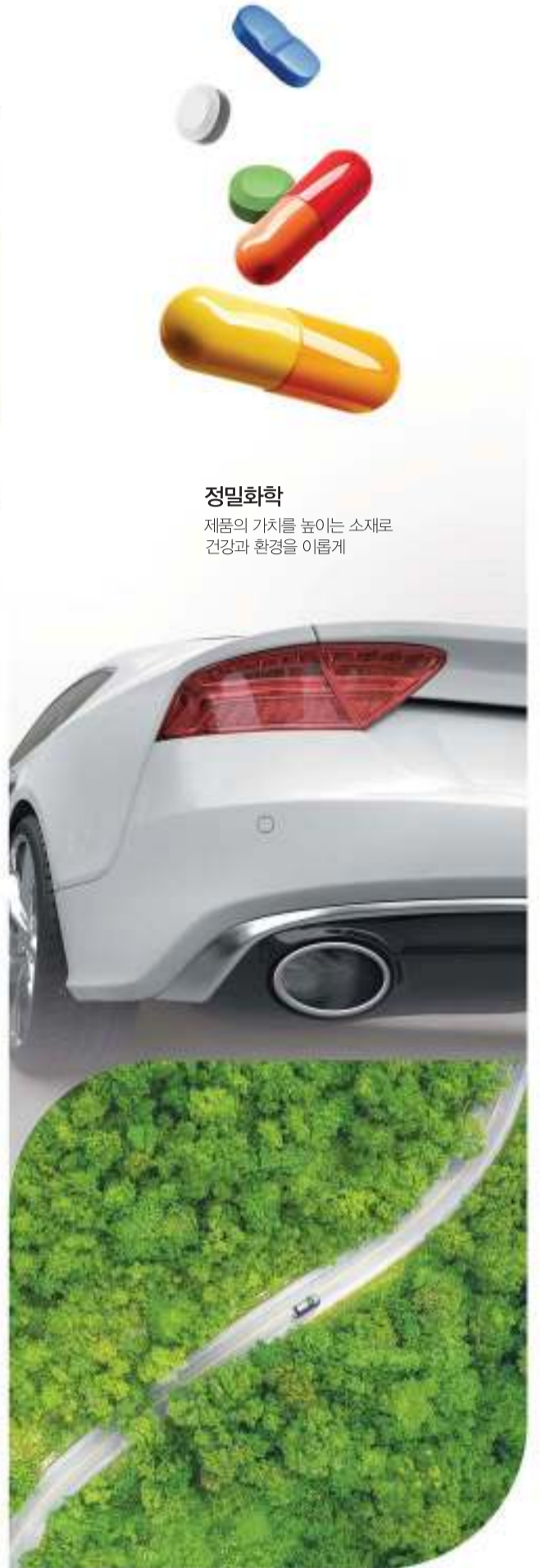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기초소재**  
생활 속 모든 곳에 필요한 소재로  
일상을 더 풍요롭게



**첨단소재**  
기능에 디자인을 더한 소재로  
세상을 아름답게



**정밀화학**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소재로  
건강과 환경을 이롭게

## 화학으로 이로운지는 세상 롯데화학 가족이 함께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더 편한 일상으로, 자연에게는 더 착한 환경으로  
사람과 자연을 모두 이롭게 하는 새로운 내일을 만듭니다